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석 준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를 매개로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 주 은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를 매개로

노 석 준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 주 은


# 인 준 서

김주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조윤정 

심사위원 이정은 

심사위원 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가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과 종속변수인 정보활용 사이에서 다중매개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및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 중 장애인 대상의 원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즉,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 유형) 중 최근 한 달 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적 있는 2,20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활용되는 모든 문항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신체장애 성인 1,89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은 신체장애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시기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은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 정보활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 또한 정보활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이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중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및 교육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 수준 향상을 위해 『디지털 포용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을 위해 그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수준 향상을 위해 단순히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역량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를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정보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는 모든 장애유형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장애 국민의 정보권을 보장하고 정보 수준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 정보활용, 정보격차, 신체장애 성인,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지능정보사회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6
3. 용어 정의 .....	7
II. 이론적 배경 .....	9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와 신체장애인의 현황 .....	9
가.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	9
나. 신체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	10
2. 지능정보사회와 정보격차 .....	14
가.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	14
나. 정보격차의 개념과 패러다임 전환 .....	16
다.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격차 실태 .....	19
3. 신체장애 성인과 정보활용 .....	23
4. 정보활용과 디지털기기 접근성 .....	26
5. 정보활용과 디지털 조력 .....	28
6. 정보활용과 자기효능감 .....	31
7. 정보활용과 정보추구욕구 .....	35
8. 디지털기기 접근성,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 정보활용의 관계 .....	36
9.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 정보활용의 관계 .....	39

<b>III. 연구방법</b> .....	<b>42</b>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	42
2. 연구모형 및 가설 .....	43
가. 연구모형 .....	43
나. 연구가설 .....	44
3. 변수 구성 및 측정 .....	44
가. 독립변수 .....	44
1) 디지털기기 접근성 .....	44
2) 디지털 조력 .....	45
나. 종속변수 .....	46
다. 매개변수 .....	48
1) 자기효능감 .....	48
2) 정보추구욕구 .....	48
라. 통제변수 .....	49
4. 분석 방법 .....	51
<b>IV. 연구결과</b> .....	<b>52</b>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2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	53
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요 변인의 차이 .....	54
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기기 접근성 .....	54
나.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조력 .....	56
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활용 .....	58
라.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 .....	60
마.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추구욕구 .....	62

4. 주요 연구변인의 상관분석 .....	64
5. 모형 및 가설의 검증 .....	66
가. 신체장애 성인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	66
나.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추구욕구 영향요인 .....	68
다.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영향요인 .....	70
라.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	73
마.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	76
<b>V. 결론 및 논의 .....</b>	<b>79</b>
1. 연구결과 요약 .....	79
2. 논의 .....	82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8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2-1〉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에 따른 구분 .....	11
〈표 2-2〉 장애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	13
〈표 2-3〉 Molnár의 정보격차 유형 .....	18
〈표 2-4〉 신체장애인의 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	20
〈표 2-5〉 자기효능감의 원천 .....	32
〈표 3-1〉 독립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	46
〈표 3-2〉 종속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	47
〈표 3-3〉 매개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	49
〈표 3-4〉 통제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	50
〈표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2
〈표 4-2〉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	54
〈표 4-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기기 접근성 .....	55
〈표 4-4〉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조력 .....	57
〈표 4-5〉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활용 .....	59
〈표 4-6〉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 .....	61
〈표 4-7〉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추구욕구 .....	63
〈표 4-8〉 주요 연구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	65
〈표 4-9〉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	67
〈표 4-10〉 정보추구욕구 영향요인 .....	69
〈표 4-11〉 정보활용 영향요인 .....	72
〈표 4-12〉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 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관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74
〈표 4-13〉 효과분해와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	76
〈표 4-14〉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 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관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76
〈표 4-15〉 효과분해와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	78
〈표 5-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	81

## 그림 목 차

[그림 2-1] 송효진의 정보격차 구분 .....	19
[그림 2-2] 자기효능감의 원천과 효과 .....	33
[그림 3-1] 연구모형 .....	4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정보사회 진입으로 우리의 일상 전반에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기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임정우, 2022). 정보화는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지 기술적인 영역만이 아닌 사회나 경제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서형준, 2014). 예를 들어, 이전에는 은행과 관공서, 기차역 등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던 일들이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되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보교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에 따른 제약 없이 대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과 정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디지털기기를 다루는 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자 개인의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다(전우천, 2016). 그러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에의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낮은 정보화 수준을 보이며, 미디어를 통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가 확대되고 있다(김아영·김경미, 2022; 오지안·유재원, 2018). 이렇듯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고 하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이를 경험하는 이들을 두고 ‘정보취약계층’이라 일컫는다.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과 함께 4대 정보취약계층의 한 부류로 분류되는 신체장애인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신체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외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신체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 대비 정보접근 96.7%, 정보역량 75.2%, 정보활용 82.0%로, 정보접근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보역량과 활용은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특히 PC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 및 가공하여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장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특정 정보기술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우승, 2006). 한편, 장애의 위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 인구의 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체장애 성인은 신체적 결함과 노화뿐만 아니라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으며, ICT에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 중기 이상의 신체장애인은 미디어를 통한 비판적 이해, 사회적 참여를 비롯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선미·정민승, 2020).

정보격차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ICT에 대한 물리적 접근(access) 여부에 따른 1차 정보격차(first-level digital divide)로부터 시작되어, 정보기기 보유자 간 활용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정보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로 변화되고 있다(임자예, 2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이러한 흐름은 정보격차에 관한 초기 연구들의 지적에 따라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디지털기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즉,

최근의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access)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ICT를 이용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지혜, 2021). 이처럼 정보격차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단순히 정보기기나 인터넷의 보유와 같은 양적인 측면을 높이는 1차 정보격차 해소에서,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 2차 정보격차 해소로 확장되고 있다(김유나·변은지,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보격차 양상과 정보격차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체장애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2차 정보격차의 해소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의 마련을 위해 정보활용수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임정우, 2022; Scheerder, van Deursen & van Dijk,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 연령, 소득,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시기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정보격차 수준을 살펴보는 연구(이수상·장임숙, 2010; 최선경, 2020)에서, 개인의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과 같은 정보격차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고정현, 2021; 임정훈·이혁준·이지훈, 2020)로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Scheerder, van Deursen & van Dijk(2017)은 인터넷 활용수준 및 결과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물질적 요인(디지털기기 접근성), 동기 요인의 7가지를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모든 요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영임과 이성규, 김지혜(2021)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활용수준에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거주지역, 경제 활동상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 유형과 정도의 장애 요인, 디지털 조력과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인 이용 태도를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 모든 요인이 디지털정보활용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인 신체장애인의 정보활용수준의 향

상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의 사회적 요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질적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황령희, 2003),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개인의 정보활용에 전제조건이 된다(조주은, 2003). 최근 정보격차에 관한 관심이 2차 정보격차로 옮겨가며 디지털기기 접근성에 대한 고려 역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물리적 접근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며 정보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에(van Dijk, 2020),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장애 성인은 디지털기기 이용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낮으며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이처럼, 주변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인식된 긍정적인 사회관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기술 사용에의 자신감을 높이며, 문제해결력을 강화한다(임정우, 2022). 이렇게 정보기기 이용에 있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디지털 조력’이라고 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최근 사회적 요인이 신체장애인의 정보활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임정우, 2022; 황현정·황용석, 2017). 그러나 아직 국내 정보격차 연구에서 디지털 조력에 대한 논의나 개념 정립이 부족하며,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과 관련하여 디지털 조력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기기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주체’를 의미하는 디지털 조력이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한편,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인간의 선택, 정서와 같은 행동양식들과 관

계가 있으며, 의사결정과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기능한다(Bandura, 1997; 정혜인·김진영, 2018, 재인용).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테크놀로지 이용에 있어 다양한 세대 간 정보공유와 참여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박웅기·박윤정, 2009), 테크놀로지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오설미·최송식, 2021; van Dijk, 2006).

또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정보추구욕구는 아직 잘 모르는 것이나 알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설중호, 2017). 이러한 정보추구욕구는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지어(허균, 2013), 정보추구욕구가 높을수록 정보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손경애, 2001).

지금까지 신체장애인의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디지털기기 접근성(김태균·조현숙, 2008; 장창기·성욱준, 2020), 정보격차가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백세현·이성규, 2021; 이근희, 2023; 황주희, 2019),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김두래·강상훈, 2023; 최선경, 2020), 정보격차를 일으키는 영향요인(문영임·이성규·김지혜, 2021; 임정우, 2022)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정보 및 매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정보격차 내의 단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하거나(김유나·변은지, 2021), 정보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지 않고 단순히 투입하여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과 더불어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심리적 요인은 고도화된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며, 정보기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김문조·김종길, 2002; van Dijk, 2020). 또

한, 디지털 조력은 인간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임정우, 2022)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유용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실제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혜, 2021). 즉,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이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심리적 요인이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차 정보격차 요인인 정보활용의 특성에 따른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선행연구에 따라 설정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및 교육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들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및 교육방안들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활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는 정보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사이에서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가?

### 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가. 신체장애인

본 연구에서 신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된 신체적 장애 유형 중 외부 신체기능 장애의 하위요인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의미한다.

#### 나. 디지털기기 접근성

본 연구에서 디지털기기 접근성이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CT 기술 및 기기의 보유 여부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연결 여부와 같은 기술 이용에의 양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1차 정보격차의 주요 측정대상이자 2차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다. 디지털 조력

본 연구에서 디지털 조력이란 사회적 지지의 일환으로 ICT 기술 및 기기 이용 도중 발생한 궁금증이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의 형태를 의미한다.

#### 라. 정보활용

본 연구에서 정보활용이란 다양한 정보활용능력의 총합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ICT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회 및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활용은 1차 정보격차인 디

지털기기 접근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사용자 집단 내 격차를 설명해 주는 2차 정보 격차 요인으로 구분된다.

#### **마.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란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일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기술 및 기기와 관련한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뜻하며, 특정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넘어 새로운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스스로 조직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 또는 믿음을 의미한다.

#### **바. 정보추구욕구**

본 연구에서 정보추구욕구란 개인 성향의 일부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ICT 기술 및 기기를 알고자 노력하고, 정보기술과 관련된 직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와 신체장애인의 현황

#### 가.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장애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장애는 개인의 문제 또는 특성의 일부인 질병, 결함 또는 기타 생물학적 비정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신체 및 정신 등의 기능적 손상 및 상실로 인하여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사회가 기대하는 기능을 보이지 못해 발생하는 불균형으로 정의한다(나운환, 2016). 즉, 장애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본인이 지닌 능력과 사회적인 기대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UN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들 수 있다. 1975년 UN은 장애의 예방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통합 및 능력의 개발을 위해 『장애인권리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 of Mentally Retarded Persons)을 발표하였다. 『장애인권리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 및 욕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자유 또는 기회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선언에서는 또한 장애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외교통상부, 2008)으로 설명한다. 즉, 장애를 개인의 결함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함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의 태도와 사회적·환경적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문제는 개인만의 것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 그동안 장애였던 것이 장애가 아니게 될 수도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외교통상부, 2008, p.2-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1980년 WHO는 ‘국제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에서 장애를 세 가지 차원, 즉 손상, 능력 장애, 사회적 불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나운환, 2016). 손상은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 상해, 선천적 기형 등으로 인해 신체적, 해부학적 기능 및 심리적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손실된 것을 말하며, 능력 장애란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리란 기능 또는 능력 장애로 인해 사회적인 역할의 수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환경적 및 사회적 수준의 장애를 의미한다(이상이, 2023).

이처럼 UN과 WHO는 장애와 장애인의 기본적 정의를 제공하였으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사회 및 환경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신체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된다(이상이, 2023). 본 연구에서 활용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

시된 신체적 장애 유형 중 외부 신체기능 장애의 하위요인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5가지 유형을 가진 신체장애인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1〉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에 따른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표 2-1〉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에 따른 구분

장애 유형		장애 기준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p>지체 장애인</p> <p>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뇌병변 장애인	<p>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p>
	시각 장애인	<p>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결로임[복시]이 있는 사람</p>

		청각 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내부 기관 장애	안면 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장 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의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 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 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 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 장애		정신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23).

신체장애인의 인구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된 장애 인구수는 총 2,652,860명이었으며, 이 중 신체장애인은 2,285,125명, 정신장애인은 367,735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약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2년은 5.2%로 2021년 5.1%와 비교하여 약 8천 명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외부 신체기능 장애 유형은 2018년 이후 전체장애 유형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 신체기능 장애의 하위 유형인 지체장애 유형은 전체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장애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1,238,532	1,223,135	1,207,368	1,191,462	1,176,291
		뇌병변장애	253,083	252,188	250,407	248,308	245,477
		시각장애	252,957	253,055	252,324	251,620	250,767
		청각·언어장애	363,326	398,579	418,180	434,813	448,573
	내부 기관 장애	안면장애	2,689	2,673	2,677	2,512	2,725
		신장장애	87,892	92,408	97,530	102,135	105,842
		심장장애	5,304	5,266	5,233	5,166	5,078
		간장애	12,524	13,154	13,808	14,433	15,066
		호흡기장애	11,761	11,522	11,544	11,541	11,451
		장루·요루장애	15,027	15,290	15,427	16,012	16,779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뇌전증장애	7,021	7,054	7,093	7,077	7,076
		지적장애	206,917	212,936	217,108	221,557	225,708
	자폐성장애	26,703	28,678	30,802	33,650	37,603	
정신장애		102,140	102,980	103,525	104,214	104,424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18~2022).

## 2. 지능정보사회와 정보격차

### 가.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의 산물인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됨으로써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가 수집·축적·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인류의 생활방식과 사회 및 경제의 운영방식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왔다(조규동, 2018).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존재하며, 지능화된 기계는 생산력 증대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인프라 전반에 구조적인 변혁을 가능하게 하였다(오인탁, 2017).

지능정보사회를 이루는 단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뜻하며,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즉, 지능정보사회란 “고도화된 ICT 인프라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라 정의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이와 같은 지능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견해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기술을 통한 혁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낙관론’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관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낙관론적 관점은 지능화된 기술이 일상생활에의 편리함과 생산력 증대를 통한 경제적 부유함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낙관론자들은 지식과 정보의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며, 결국 사회에 부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송경진 역, 2016; Schwab, 2016). 엄효진과 이명진 (2020)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예로 들며,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창의·감성·판단과 같은 고차원적인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낙관론적 입장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히 분배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비관론적 견해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장의 자동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법적 체제 부족에 의한 문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의 불평등 및 독점 등과 같은 문제의 발생과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 및 관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조규동, 201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AI와 IoT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기술과 정보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적 차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자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다(전우천, 2016).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은 편리하고 윤택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비장애인과 비교해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할 확률이 높은 신체장애인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지능정보 서비스와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워 새로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 신체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미리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 나. 정보격차의 개념과 패러다임 전환

정보격차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여러 사회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사회 계층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문제, 즉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설중호, 2017).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는 1995년에 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인 Gray Andrew Pole의 ‘Schoolnet Programs’라는 기사에서 정보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사회적 격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Molnár, 2003). 같은 해에, 미국 상무부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발표한 ‘인터넷을 통한 붕괴: 미국 지방과 도시의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조사(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에서 전화와 컴퓨터를 비롯한 ICT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로 정의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이후, OECD는 2001년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보고서에서 NTIA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ICT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인, 가정, 사회 및 지리적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의 차이로 정의하며, ICT에의 접근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이용에서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이종(2000)이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라는 연구에서 정보사회에 새롭게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을 개념화하는 용어로 ‘정보격차’의 사용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경제·지역·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정의하며 정보격차라는 용어의 법률적 사용을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격차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3항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정보의 접근에 있어 발생하는 집단 간의 불균형, 즉 정보통신기기나 매체의 보유 여부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연결 여부와 같은 기술적이고 양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점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사용자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며 이용과 활용에서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권현진·김혜정·김현철, 2015). 즉, 최근의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access)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ICT를 이용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김지혜, 2021). 이에 따라 정보격차의 단계적 확장성을 논의하는 연구가 최근 등장하며(진상기, 2013),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의 흐름이 디지털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관련된 ‘1차 정보격차’에서 정보의 활용 수준과 관련된 ‘2차 정보격차’로 확장되고 있다(김유나·변은지, 2021).

대표적인 학자인 Molnár(2003)는 혁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이론을 활용하여 정보격차를 인터넷 수용 시기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정보격차 유형을 구체화하였다(〈표 2-3〉 참조).

우선, 초기 도입기(Early adaptation)에는 접근 기회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접근 격차(Access divide)’, 두 번째 단계인 도약기(Take-off)는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용 격차(Usage divide)’, 마지막 단계인 포화기(Saturation)는 ‘사용자 집단 내 차이에 의한 격차(Divide stemming from the quality of use)’의 세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을 ‘초기 정보격차(Early digital divide)’와 ‘1차 정보격차(Primary digital divide)’, ‘2차 정보격차(Secondary digital divide)’라 명명하였다. 또한, Hargittai(2001)는 인터넷 접근

에의 불평등을 정보격차라 논하는 기존의 논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격차의 단계적 구분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의 '1차 정보격차'와 구분되는 '2차 정보격차'의 개념에 대해 사용자 집단 내 정보활용 기술(Skill)의 수준과 방식의 차이로 설명하며, 정보활용 기술을 정보격차의 하위 유형으로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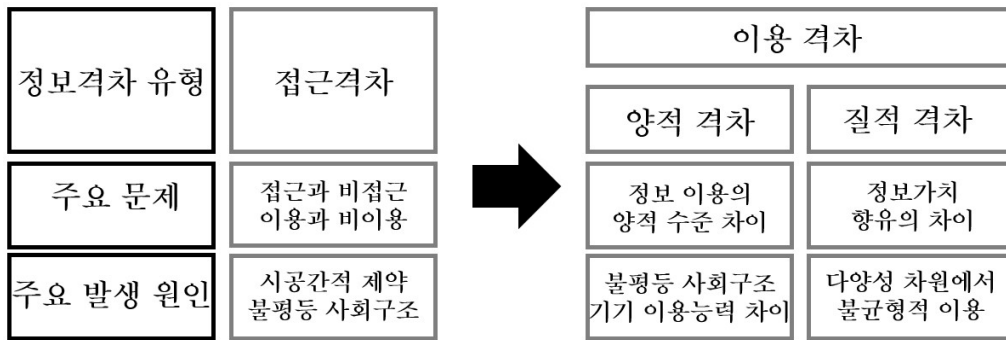
〈표 2-3〉 Molnár의 정보격차 유형

적응 단계	정보 격차		
	유형	용어	설명
초기 도입기	접근 격차	초기 정보격차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간의 차이
도약기	이용 격차	1차 정보격차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차이
포화기	사용자 집단 내의 차이에 의한 격차	2차 정보격차	사용자 집단 내의 차이

출처: Molnár, S.(2003).

이러한 연구 흐름은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수준 향상을 위한 디지털정보격차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모형에서 정보격차의 유형을 디지털정보화 접근, 디지털정보화 역량, 디지털정보화 활용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송효진(2014)은 기술접근성과 관련된 전통적인 정보격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보격차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그림 2-1] 참조).

첫 단계는 정보기술에의 접근과 이용 가능성에 따른 '접근격차'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정보이용의 양적 수준 및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보 향유와 관련된 '이용격차'로, 정보통신망이 확충되며 접근격차에서 이용격차로 논의가 확장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송효진(2014).

[그림 2-1] 송효진의 정보격차 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정보 접근이 포화기에 접어들게 되면 물리적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여부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활용 수준이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문영임·이성규·김지혜,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의 개념으로 Hargittai(2001)와 송효진(2014)의 정보격차 유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정보격차의 하위 요소를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으로 구분하고, 정보격차의 단계적 맥락을 반영하여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다.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격차 실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점검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 해당 조사의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만 5천 명[일반 국민(고령층 포함) 7천 명, 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 각 2천 2백 명, 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각 7백 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여섯 부류를 정보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을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취약계층이란 ICT 기기에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신체적인 여건에 의해 문제를 겪는 계층을 의미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역량’,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근이란 디지털 정보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며, 역량이란 디지털기기의 기본적인 이용능력 수준을, 활용은 디지털기기를 통한 인터넷 사용의 질적인 활용 수준을 의미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표 2-4〉 신체장애인의 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접근	92.6	95.4	95.6	96.7
역량	67.8	74.2	74.9	75.2
활용	74.0	81.4	81.5	82.0
종합	75.2	81.3	81.7	82.2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신체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을 100%라고 할 때 신체장애인의 2022년 디지털정보화 종합 수준은 82.2%의 수준을 보였으며, 2019년 75.2%, 2020년 81.3%, 2021년 81.7%로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평균 증가폭이 0.5%대로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일반 국민의 8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상승 속도가 정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부문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정보화 접근에 있어서 일반 국민 대비 92.6%에 이

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디지털정보화 역량(75.2%)과 활용(82.0%) 수준의 부족으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표 2-4〉 참고).

한편, 장애의 위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 인구의 수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체장애 성인은 신체적 결함과 노화뿐만 아니라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으며, ICT에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 중기 이상의 신체장애인은 미디어를 통한 비판적 이해, 사회적 참여를 비롯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선미·정민승, 2020). 실제로, 정보격차가 해소된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신체장애 성인의 사회참여와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나·변은지, 2021).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가장애인기구(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NOD)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를 비롯한 ICT 기기와 인터넷 네트워크는 비장애 성인 사용자보다 장애 성인 사용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lark & Gorski, 2001). 또한, 장애 성인 사용자는 비장애 성인 사용자와 비교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변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사용을 즐기는 것으로 밝혀졌다(Taylor, 2000).

이 밖에도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장창기와 성욱준(2020)은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정보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디지털기기 이용 동기가 기술적 접근 및 인터넷 이용 역량과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형태의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장애 자체가 정보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그로 인해 초래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낮은 동기가 주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선경(2020)은 성별에 따른 장애인 집단 내 정보격차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디지털 정보 기기의 보유 및 이용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수준이 더 낮은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열악하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적합한 지역사회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선경, 2020).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문영임과 이성규, 김지혜(2021)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 요인인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자본, 장애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디지털 정보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하나인 경제활동 상태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디지털정보화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마련과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의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수행되거나, 성인 초기를 제외한 성인 중기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 초기는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극복을 위해 활발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과 달리 학교 교육의 대상을 벗어나 지속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 초기 장애인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신체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2차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과 더불어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3. 신체장애 성인과 정보활용

AI를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지능정보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정보격차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ICT를 비롯한 디지털기기 접근성예의 차이에서 정보기기 보유자 간 질적활용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활용예의 차이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임자예, 2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즉, 단순히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정보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활용은 ICT를 이용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반영하는 관점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기기를 통한 인터넷 사용의 질적인 활용 수준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의 측정을 위해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이러한 정보활용 역량은 개인의 삶에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참여의 필수적인 요소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대인관계 확장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일상생활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두래·강상훈, 2023; 오지안·유재원, 2018; 황현정·황용석, 2017).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현정과 황용석(2017)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 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정보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나 취미생활, 사회활동, 정신건강 등 일상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의 만족도가 높아져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희정과 신혜리, 김영선(2019)은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중·고령자의 정보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보활용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만족의 수준이 높아지고(임정우,

2022), 온라인 사회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박영주, 2021) 일상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임·이성규·김지혜, 2021; 백세현·이성규, 2021).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보 활용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취미생활, 사회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행복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보활용 수준에 의한 2차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발생시기 등의 장애 요인이다. 즉, 개인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맥락이 정보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이수상·장임숙, 2010; 최선경, 202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과 비교해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장애 정도가 약하고, 선천적 장애를 가질수록 정보역량 및 활용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유나·변은지, 2021; 김지혜, 2021; Livingstone, Bober & Helsper, 2005), 장애 유형에 있어서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백세현·이성규, 2021; 임정우, 2022; 박영주, 2021). 그러나 이처럼 인구사회학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계속해서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또는 집단 내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의 관심은 사용자 개인 내 심리적 요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문영임·이성규·김지혜, 202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보기술 및 정보기기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용 동기 및 능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정, 2021; 신혜리·김수경·김영선, 2020).

일상생활 및 디지털기기 이용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망 또한, 정보역량 및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임정우, 2022; 임정훈·이혁준·

이지훈, 2020; Helsper & Van Deursen, 2017). 특히 사회적 지지의 일환인 디지털 조력은 혼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체장애인의 정보격차 완화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수준 및 결과의 영향요인을 밝힌 Scheerder와 van Deursen, van Dijk(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물질적 요인(디지털기기 접근성), 동기 요인의 7가지를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7가지 요인 모두 인터넷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김유나와 변은지(2021)가 고령층의 질적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원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인지된 유용성과 자기효능감, 자신감의 심리적 요인, 디지털 조력의 사회적 요인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성별과 교육수준, 가구소득,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자신감 요인은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 요인은 정보활용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박영주(2021)는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장애 정도, 장애유형, 소득, 거주지역 요인을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디지털 정보화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 소득, 장애 정도, 장애유형 요인이 디지털 정보화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신체장애인의 정보활용 수준의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4. 정보활용과 디지털기기 접근성

접근성(accessibility)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사용방법의 기본적인 제공과 그에 따르는 사용상의 적절성, 또는 능력, 필요, 환경 등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보편화된 요구로 정의된다(Benyon, Crerar & Wilkinson, 2001). 즉, 접근성이란 시설 및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보장하는 여건 또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접근성은 건축학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학교와 은행을 비롯한 건축물과 공공시설, 전기와 전화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등이 접근성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접근성의 개념을 ICT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면,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과 ICT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된 정보의 사용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의 제공과 유지를 의미한다(이성일, 2006).

대표적인 학자인 Benyon과 Crerar, Wilkinson(2001)은 접근성을 공학적 관점에서 ‘장비의 물리적 접근’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작의 적합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장비의 물리적 접근은 ‘기술과 관련된 충분한 장비와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논의로 정보 그 자체에의 접근을 의미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작의 적합성은 ‘디지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기나 시스템이 어떤 잠재적 사용자든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논의로 주로 사용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조주은, 2003). 또한, Stephanidis와 Savidis(2001)는 ICT에 입각하여 접근성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신체적·인지적 특성과 문화 차이 등의 ‘사용자 범주’, ICT와 관련된 ‘작업의 범위와 속성’, 정보 획득 시 활용하는 ‘기기, 장치, 서비스의 형태’,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장소’, 기기 및 장치의 ‘저장용량’ 등과 무관하게 사용에 대

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없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사용성에 대한 고려라 주장하였다. 이처럼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지능정보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정보기기를 비롯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며,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따른 계층간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1차 정보격차 요인으로 설명된다. 즉, 디지털기기 접근성의 차이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결합하여 ICT 기기 및 서비스를 많이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격차와 참여 정도에 따른 참여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 2012).

오늘날 디지털기기 접근성의 문제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연결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품질이나 성능에 의한 지속적인 교체와 유지가 정보기기 보유에 있어 핵심이 됨에 따라 새로운 측면으로 진화되고 있다(Van dijk, 2020). 이러한 디지털기기 접근 격차는 사용자가 보유한 자본과 가장 큰 연관을 지니며, 연령, 학력, 장애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강주현·박재국·김효영, 2023; Van dijk, 2020). 특히 신체장애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보조공학기기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저소득의 비중이 높은 신체장애인의 특성상 고비용의 보조 기기 구매가 어려우며,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소량 생산되는 기기의 특성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온라인 접속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장애인을 위한 개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정보기기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주은(2003)은 장애가 정보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애 요인이 정보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권선희(2022)는 정보접근성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 및 정신건강 요인이 디

지텔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취약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정보접근성 요인이 디지털활용능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김문조와 김종길(2002)은 정보격차와 관련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정보 및 기술에의 접근 여부로부터 파생하는 1차 정보격차는 ICT 기술 및 기기의 발달과 정보활용 및 이용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2차 정보격차의 측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기기 접근성 격차의 완화는 디지털 역량의 강화와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질적 활용과 같은 연속적인 단계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되며(조주은, 2003), 디지털기기 접근성 격차가 해소된다면 디지털 정보화가 신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유나·변은지, 2021).

## 5. 정보활용과 디지털 조력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산물이며, 주변 환경에 따라 삶의 방식이나 태도, 행동의 양상이 상당히 변화한다(김지혜, 2021). 이처럼 개인을 둘러싼 관계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 영향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지며, 1970년대에 들어 타인이 제공하는 환경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표현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정현, 2021). 이후 사회적 지지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이웃 등 주위 사람들에게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Helsper & van Deursen, 2017; Selwyn, 2004).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간 상호작용

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인간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 좌절의 극복을 돕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임정우, 2022).

사회적 지지는 또한 사용자 내의 격차에 주목하는 2차 정보격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정보격차의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기술의 수용 및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문영임·이성규·김지혜, 2021), 사회적 지지의 여부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임정훈·이혁준·이지훈, 2020; 황현정·황용석, 2017). 또한, van Dijk(2020)는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요인을 지목하며, 디지털 조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기술의 완전한 이해와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체적 제약으로 자유로운 정보활동이 어려운 신체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이나 디지털기기 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사회적 지지가 신체장애인의 정보역량 및 활용에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등장한 디지털 조력(Digital Support)은 기존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유사하다(김지혜, 2021).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지를 제공하는 조력자로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강조한다는 데에서 차이를 지닌다(김봉섭·고정현, 2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은 디지털 조력에 대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봉섭과 고정현(2020)은 디지털기기 이용 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 가능한 사회적 지지의 일원으로, IT 전문가와 서비스 센터와 같은 '공식적 조력'과 가족, 친구에 의한 '비공식적 조력'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디지털 조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허덕원(2020)은 결혼이민자의 다층적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에서 디지털 이용을 돕는 사회적 요인인 디지털 조력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요인이 특히 기기 이용능력이 낮은 집단의 활용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고정현과 박선주(2021)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영향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인 디지털 조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수가 디지털 정보 활용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Selwyn(2004)은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해의 재검토를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제공하는 디지털 조력은 ICT에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의 능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개인의 ICT 활용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e와 Coughili(2015)는 새로운 기기의 구매와 기술 사용에 있어 사회적 관계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오주현(2017), 황현정과 황용석(2017) 등은 노인의 디지털기기 수용 및 활용능력에 자녀 및 손자녀를 비롯한 다른 세대의 가구 구성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공식적 및 비공식적 디지털 조력자가 제공하는 기술적·정서적 지원은 기술의 채택과 이용에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활용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Di Maggio & Hargittai, 2001; Hargittai, 2001), 기술 수용 태도와 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활용능력을 향상함을 알 수 있다(임정우, 2022; Selwyn, 2004).

이와 같이 정보격차에 있어 디지털 조력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 신체장애를 가진 성인의 정보 수준과 관련하여 디지털 조력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이 정의한 디지털 조력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하며,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수준과 관련하여 디지털 조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6. 정보활용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처음 등장한 개념이며,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생성능력이라고 정의된다(진춘화, 2019). 즉, 자기효능감이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며, 자기 상(像)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김배성·우형진, 2019). 이러한 신념은 인간의 선택, 정서, 사고 등 많은 행동양식과 관계가 있어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정혜인·김진영, 2018).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성공경험과 타인을 통한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및 정서적 각성과 같은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았다(Bandura, 1982; Zullkosky, 2009 재인용). 이 중 성공경험은 특정한 일에 반복적으로 성공하거나, 도전적인 난이도에서의 성취 경험을 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경험은 성공경험과는 달리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효능감을 얻는 것으로, 타인의 성공경험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관찰대상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자기효능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설득은 대상의 주변 환경인 가족, 친구, 동료, 교사 등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함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심리적 각성은 말 그대로 정서적 각성이나 흥분과 동일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불안함과 초조한 감정이 정서적 각성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상태일 때 보다 기술 및 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andura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원천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자기효능감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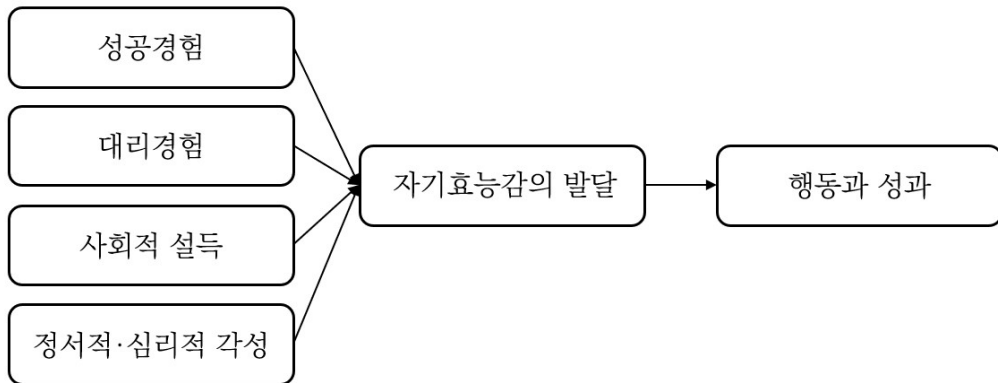
구성요소	의미
성공경험	과거에 수행하려고 했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이력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과거 행동에 대한 유능했던 기억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
대리경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대리적 조건화 또는 관찰학습과 연관되는 개념임. 다른 이의 능숙한 수행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본인과 모델이 비슷할수록 대리경험은 커질 수 있음
사회적 설득	가족, 친구, 동료, 교사 등 신뢰 있는 타인의 격려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음
정서적·심리적 각성	긴장, 정신적 혼란,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생리적 신호를 통해 효용성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오설미, 최송식(2021).

또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 수준은 동기부여 정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자 노력한다. 즉, 자기효능감 신념은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장애물에 직면하여 얼마나 버틸 것인지에 반영되는 동기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의 통제와 문제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긍정적 신념이며, 자신감으로도 대체된다(Bandura, 1982; Zullkosky, 2009 재인용).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과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실제 능력 수준만큼이나 목표를 성취하고 욕구를 행동으로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Burkley & Burkley, 2018), 인간의 행동과 성과를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된다.

[그림 2-2]는 자기효능감의 원천과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출처: Bandura(1977), 차정은(1997: 15)에서 재인용.

[그림 2-2] 자기효능감의 원천과 효과

Bandura의 초기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모든 학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념으로 설명되었으며,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구체적인 측정을 위해 각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련 척도가 개발되며, 자기효능감 이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신념과 각 학문 영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신념으로 구분되게 되었다(오설미·최송식, 2021).

구체적으로, Bandura(1999)는 자기효능감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다차원성을 가진 신념이라 보았으며, 정확한 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영역에 따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일종으로 정보기술 및 기기와 관련한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뜻하며, 기술의 수용 및 활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권현진·김혜정·김현철, 2015; 나정, 2021; Taylor & Todd, 2001).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자기효능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신혜리·김수경·김영선, 2020; Taylor & Todd, 2001), 수용되는 매체명과의 합성어 형태로

사용된다(나정, 2021; 오설미·최송식, 2021; Venkatesh & Davis, 2000).

Taylor와 Todd(2001)는 정보기술 활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의미를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느끼는 효능감으로 축소하여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수가 정보기술 활용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혜리와 김수경, 김영선(2020)은 중·고령자의 디지털 헬스기기 이용 의도에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변수를 연구에 활용되는 특정 매체에 대한 효능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중·고령자의 디지털 헬스기기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년층의 이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면, Venkatesh와 Davis(2006)는 컴퓨터라는 특정한 정보기기에 초점을 맞춰 컴퓨터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에 대해 컴퓨터 기술 및 기능의 사용과 더불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정의하였다. 또한, 오설미와 최송식(2021)은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신기술의 이용성과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효능감을 기술적 자기효능감이라 정의하였으며,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신기술의 이용성과 이용 의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구분하는 학문적 경향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의미를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느끼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일부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넘어 새로운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스스로 조직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 또는 믿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7. 정보활용과 정보추구욕구

정보추구욕구는 개인 성향의 일부로, 아직 모르는 것이나 알더라도 확실치 않은 것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인지 욕구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하며(권현진·김혜정·김현철, 2015), 기술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정의되기도 한다(설중호, 2017). 즉, 정보추구욕구는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익숙하지 않은 정보기술 및 기기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정보추구욕구가 높은 사람은 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불안함과 불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낙관성과 혁신성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크게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ICT 기술을 알고자 노력한다. 또한, 높은 정보추구욕구를 가진 사람은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뉴미디어를 포함한 ICT 기기를 수용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보추구욕구가 뉴미디어의 수용 및 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권현진·김혜정·김현철, 2015). 이러한 정보추구욕구는 지식 격차의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지식 격차는 교육수준과 더불어 개인의 동기화에 기인하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정보추구욕구가 높을 때 지식 격차가 대폭적으로 완화됨을 경험할 수 있다(Ettema & Kline, 1977; 손경애, 2001 재인용).

정보추구욕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현진과 김혜정, 김현철(2015)은 아동의 심리적 요인과 2차 정보격차 유형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보추구욕구를 2차 정보격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정보추구욕구를 비롯한 심리적 요인들이 2차 정보격차인 정보역량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Lee와 Wu(2012)는 PISA(2009) 자료를 통해 온라인 읽기(Online Reading) 변수와 읽기 능력(Reading Literacy)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심리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컴퓨터에 대한 태도 요인은 개인 내적 심리요인의 하나로 활용되었으며, 해당 요인이 온라인 읽기 변수와 읽기 능력 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설중호(2017)는 개인의 성향 및 사회·문화적 자본과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정보추구욕구는 독립변수로써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정보추구욕구는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임이 증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은정(2020)은 소비자의 웨어러블 스포츠 웨어 기술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인지 욕구는 조절변수 중 하나로 웨어러블 스포츠 웨어 기술에 대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며, 인지 욕구가 기술수용에의 적극성을 결정짓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정보추구욕구는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정도임과 동시에 이용 및 활용방법과 같은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활동에 대한 욕구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추구욕구를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기술 및 정보기기를 알고자 노력하고 정보기술과 관련된 직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의미를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8. 디지털기기 접근성,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 정보활용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행동·인지·정서적 차원을 포함하여 내린 자신의 역량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며, 주관적인 자기 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인간의 선택과 사고를 비롯한 많은 행동양식과 관계가 있어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행동 수행에의 동기부여 정도를 결정한다. 또한, 개인 성향의 일부인 정보추구욕구는 ICT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인지 욕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인 내적 심리요인은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 동기와 능력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신혜리·김수경·김영선, 2020), 질적 정보격차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다(김유나·변은지, 2021).

한편, 그동안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황령희, 200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개인의 활용능력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특히 신체장애 성인의 경우, 보편적인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낮은 정보화 수준을 보이며, 미디어를 통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가 확대되는 등 정보격차가 심화되며 디지털기기 접근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김아영·김경미, 2022; 오지안·유재원, 2018).

그러나 정보기술에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고도화된 정보격차의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정보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존재하게 되면서 사용자의 내적 심리요인과 관련된 정보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지능정보기술의 용도와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을 매개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장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활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실제 활용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Watson, 1998).

van Dijk(2020)는 접근성이 갖추어졌음에도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심리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욕구, 태도, 기대, 동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디지털 세상에의 참여와 기술의 이용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또한, Selwyn(2004)은 정보격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개인의 내적 심리요인을 고려하

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보격차의 발생은 기술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복잡한 혼합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지혜(2021)는 장애인의 기술 접근성이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관심과 관련된 기술수용 태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수용 태도가 두 변수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성과 소셜미디어 태도와의 인과관계를 밝힌 하승희(2015)의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높을수록 인지 및 활용 욕구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태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태일과 도수관(2005)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술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 차이는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경희와 유수정(2020)은 노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미디어의 보유 및 기본적인 역량과 관련된 접근과 통제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Li 등(2023)은 ICT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스마트폰 보유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ICT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간접효과와 컴퓨터 보유가 ICT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밝혀내었다. 김민정과 박영민(2021)은 대학생의 디지털리터러시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 디지털리터러시 태도의 하위 변인인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송효진(2014)은 질적 정보격차와 인터넷 이용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욕구를 의미하는 인터넷 인식과 자기효능감의 인지·심리적 요인이 정보이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심리적 요인, 정보활용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가 정보활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에서 정보활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9.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 정보활용의 관계

가족과 친구 등 개인을 둘러싼 주변 관계들이 디지털기기 사용에 있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 디지털 조력은 기존의 사회적 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심리적 요인과 함께 정보활용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 사용에 있어 기술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van Dijk, 2020). 즉, 디지털 조력은 기술에 대한 심리적 접근에 자원으로 기능하며 정보기술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 실패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고, 문제해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측면이 있다.

디지털 조력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주변인들로부터 많은 조력과 지지를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김양이·이연숙, 2017). 또한, 정덕임(2012)은 낮은 자기효능감은 주변의 관계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발달을 방해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즉, 주변인의 도움과 정서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

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디지털 조력은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정보추구욕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종기와 김진성(2011)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물질적 지원은 개인의 정보공유 태도와 정보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합적 기술수용모델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주변의 지지는 기술의 장점과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돕고, 두려움을 낮추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유용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실제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지혜, 2021).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현경 등(2014)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두 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용기와 박윤정(2009)은 자녀와 부모의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살피는 연구에서 자녀세대의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부모세대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부모세대의 인터넷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으로 자녀세대의 디지털 조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주은(2010)은 노인의 스마트폰 수용이 가족 구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고, 그 이유를 자녀세대가 스마트 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상윤과 남석인(2021)은 기술수용모델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조력 요인이 기술수용요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수용모델의 초기연구에 따르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기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정의된다. 각 요인의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인지된 유용성은 기술에 대해 편리함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인지된 용이성은 기술 사용이 어렵지 않고 배우기 쉽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구결과, 사회적 조력과 같은 사회적 환경요인이 기술수용요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밝혀내었으며, 궁극적으로 기술수용태도에

사회적 조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고대선(2019)은 통합 기술수용이론을 통해 성별에 따른 노인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변인과 공식적 디지털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촉진조건이 높을수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실제 활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조력과 자기효능감 및 정보추구욕구의 심리적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디지털 조력이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보격차 연구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조력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장애를 가진 성인의 정보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디지털 조력을 함께 다루고자 하며, 디지털 조력에서 정보활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이 정보활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를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연차보고 등)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등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설문조사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2).

본 연구에서 해당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한 이유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실태조사 및 패널데이터는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또는 일상생활 및 삶의 만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연구자가 보고자 한 정보활용 수준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기기에의 접근부터 역량, 활용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가 본 연구주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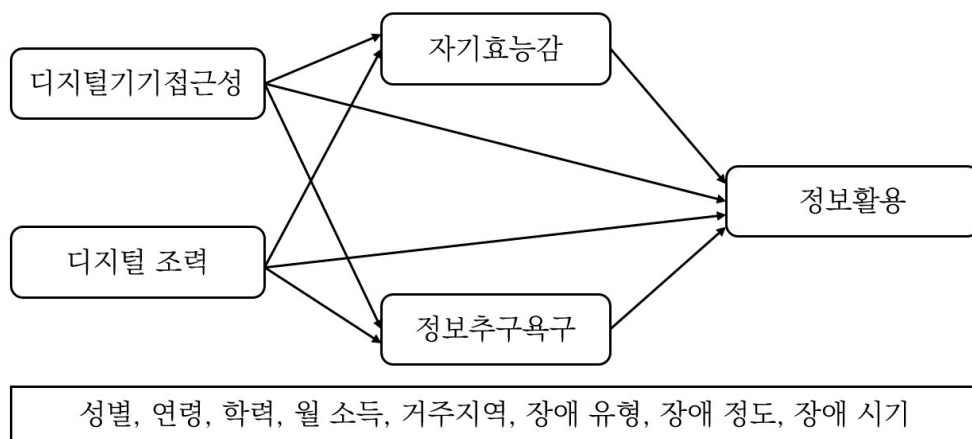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대상의 원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의 모집단은 2022년 8월 1일 기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 유형)으로, 설문조사 시점에서 최근 한 달 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적이 있는 신체장애인 2,20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 중 연구에 활용되는 모든 문항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신체장애 성인 1,89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가 정보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과 종속변수인 정보활용 사이에 미치는 다중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을 신체장애 성인의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와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이며, 매개변수는 자기효능감, 정보 추구욕구, 종속변수는 정보활용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 거주지역,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시기를 포함하였다.

## 나. 연구가설

- H1: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디지털 조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정보추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디지털 조력은 정보추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디지털 조력은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자기효능감은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정보추구욕구는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자기효능감은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 H10: 자기효능감은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 H11: 정보추구욕구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 H12: 정보추구욕구는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 3. 변수 구성 및 측정

### 가. 독립변수

#### 1) 디지털기기 접근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디지털정보 기기 및 서비스의 보유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

사를 통해 조사된 관련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을 살펴보면, PC와 모바일 등의 정보 통신 기기의 보유 여부를 묻는 5개 문항과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 보유 여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문항 ‘2-1)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모두 ‘있다’, ‘없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1(있다)과 0(없다)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2-1) 휴대전화’ 문항은 다른 문항과 달리 ‘스마트폰’, ‘피쳐폰’, ‘없다’로 구성되어 있어 ‘스마트폰’, ‘피쳐폰’ 응답은 1로, ‘없다’의 경우 0으로 재코딩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한 값을 통해 분석하였다.

## 2) 디지털 조력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정보 기기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2022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조력과 관련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주변의 가까운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공식적 조력과 관련된 3문항, 서비스 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는 공식적 조력과 관련된 2문항,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응답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해당 문항의 내적일치도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alpha$ 는 .729로 나타나, 문항의 내적 일치도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활용된 독립변수의 척도 구성방법과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독립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구분		구성		변수 측정
독립 변수	디지털 정보화 접근	1) PC 보유율	1-1) 데스크 탑	1=있음; 0=없음
			1-2) 노트북	
		2) 모바일 기기 보유율	2-1) 휴대전화	1=스마트폰, 피쳐폰; 0=없다
			2-2) 스마트패드	
			2-3) 스마트 주변기기	
		3) 가구 내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		1=이용 가능; 0=이용 불가능
	디지털 조력	1)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2) 가족(자녀, 손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		
		3)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4)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5) 인터넷 정보검색으로 도움을 받는다.				
6) 서비스센터 등 전문 인력에게 도움을 받는다.				

####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보활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활용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문항을 사용하였다.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유·무선 인터넷 이용 여부’를 묻는 문항,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다양성’ 정도에 관한 문항, ‘정보의 생산 및 공유’ 정도를 묻는 문항, ‘네트워킹’, ‘사회 및 경제활동’ 정도를 묻는 7개 범주, 25문항으로, PC와 모바일을 기준으로 각각 조사하여 총 50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  $\alpha$ 는 .973으로, 매우 높은 문항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 활용되는 종속변수의 척도 구성방법과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종속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구분	구성	변수 측정	
종속 변수	디지털 정보화 활용	1)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 정도	PC/ 모바일 각각 응답  1= 전혀 이용 안한다 ~ 4= 자주 이용한다
		1-1) 정보 및 뉴스 검색	
		1-2) 이메일	
		1-3) 미디어콘텐츠(영화·음악·전자책, 웹툰 등)	
		1-4) 교육콘텐츠(각종 강좌·강의수강 등)	
		2)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 정도	
		2-1)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2-2)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버 메신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네이버밴드 메신저 등)	
		2-3) 개인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싸이월드, 블로거닷컴(구글) 등)	
		2-4) 커뮤니티(인터넷 카페·동호회 등)	
		2-5)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료공유, 협업	
		3) 생활 서비스 이용 정도	
		3-1) 생활정보서비스	
		3-2) 전자상거래서비스	
		3-3) 금융거래서비스	
		3-4) 공공서비스	
		4) 정보생산·공유 활동 정도	
		4-1)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수정 및 편집한 콘텐츠(정보, 지식, 뉴스, 동영상, 사진 등)를 올린 적이 있다(예: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4-2) 인터넷에서 본 콘텐츠(정보, 지식, 뉴스, 동영상, 사진 등)를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한 적이 있다(예: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톡, 라인 등)	
		5) 네트워킹 활동 정도	
		5-1) 나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	
		5-2)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	
		6) 사회참여 활동 정도	
		6-1)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적이 있다. (댓글 작성, 게시판 글 게시, 토론 등)	
		6-2)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등을 한 적이 있다.	
		6-3) 나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금전/재능)나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6-4)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여론조사, 서명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7) 경제활동 정도
7-1) 나는 인터넷을 통해 취업이나 이직(승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7-2) 나는 인터넷을 통해 창업이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활동 (홍보, 광고, 판촉, 포로모션 등)을 한 적이 있다.
7-3) 나는 인터넷을 통해 소득증대(유지)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검색/습득, 재테크, 부동산 금융상품, 인맥형성 관리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7-4) 나는 인터넷을 통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 (공동구매, 해외직접구매, 가격비교 등)을 한 적이 있다.

## 다. 매개변수

### 1)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 및 신념을 의미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디지털기기 학습과 관련된 1문항과 디지털기기 이용에 관한 2개 문항, 디지털기기 욕구에 관한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술 활용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alpha$ 는 .853으로 높은 문항일치도를 보였으며,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정보추구욕구

본 연구의 또 다른 매개변수인 정보추구욕구는 잘 모르는 것 또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기술 및 기기에 대한 관심

과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정도를 묻는 4개 문항을 통해 해당 개념을 측정하였으며, 응답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정보화 기술과 기기에 대한 정보추구욕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문항의 내적일치도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alpha$ 는 .901으로 매우 높은 문항일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되는 매개변수의 척도 구성방법과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매개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구분	구성	변수 측정
자기 효능감	1) 나는 디지털기기를 배우는 데 자신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2) 나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데 자신이 있다.	
	3) 나는 새로운 디지털기기의 사용방법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4) 디지털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	
매개 변수	1) 디지털 대전환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싶음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2)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일자리를 얻고 싶음	
	3) 디지털 기술 이해, 활용능력이 미래 삶을 결정할 것	
	4) 디지털 대전환 관련 교육 지원 시 수강 의향 있음	

#### 라.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2차 정보격차 요인인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 정도, 거주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장애 요인으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시기를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통제변수 구성방법 및 측정방법

구분	범주	변수 측정
성별	성별 (2개 구분)	0=남성, 1=여성
연령	연령(5개 구분)	1=19세 이상;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학력	학력(4개 구분)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 3=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포함) 4=전문대졸 이상
월 소득	월 소득(6개 구분)	1=100만원 미만 2=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500만원 이상
거주지역	거주지역(2개 구분)	0=시, 1=군
장애 유형	장애 유형(4개 구분)	0=지체장애; 1=뇌병변 장애; 2=시각 장애; 3=청각/언어 장애
장애 정도	장애 정도(2개 구분)	0=중증, 1=경증
장애 시기	장애 시기(2개 구분)	0=선천적, 1= 후천적

####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이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데이터는 SPSS 26.0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요 연구변인의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더불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연구변인을 측정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더불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수(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가 매개변수(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와 종속변수(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력과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통한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를 사용하는 데 있어 bootstrap 샘플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에 대한 편의수정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 거주지역,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시기 요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95)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14	69.3
	여	581	30.7
연령	19~29세	192	10.1
	30대	232	12.2
	40대	375	19.8
	50대	512	27.0
	60대 이상	584	30.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5	6.1
	중학교 졸업	314	16.6
	고등학교 졸업	1093	57.7
	대학교 졸업 이상	373	19.7
월 소득	100만원 미만	229	12.1
	100~199만원	325	17.2
	200~299만원	409	21.6
	300~399만원	391	20.6
	400~499만원	259	13.7
	500만원 이상	282	14.9
거주지역	시	1824	96.3
	군	71	3.7
장애 유형	지체장애	1146	60.5
	뇌병변 장애	247	13.0
	시각 장애	260	13.7
	청각/언어 장애	242	12.8
장애 정도	중증	443	23.4
	경증	1452	76.6
장애 시기	선천	627	33.1
	후천	1268	66.9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314명(69.3%), 여성이 581명(30.7%)으로, 여성의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584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512명(27.0%), 40대 375명(19.8%), 30대 232명(12.2%), 19세 이상 29세 이하 192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93명(57.7%)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373명(19.7%), 중학교 졸업 314명(16.6%),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5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원 이상~299만원 이하가 409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399만원 이하 391명(20.6%), 10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 325명(17.2%), 500만원 이상이 282명(14.9%), 400만원 이상~499만원 이하 259명(13.7%), 100만원 미만 229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시 1,824명(96.3%), 군 71명(3.7%)으로 상대적으로 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1,146명(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 장애 260명(13.7%), 뇌병변 장애 247명(13.0%), 청각/언어 장애 242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는 경증 1,452명(76.6%), 중증 443명(23.4%)으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약한 경증장애인의 비율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 시기의 경우 후천적 장애 1,268명(66.9%), 선천적 장애 627명(33.1%)으로, 상대적으로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4-2>와 같다.

우선,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평균 2.993, 표준편차 .917, 디지털 조력은 평균 2.487, 표준편차 .565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은 평균 1.831, 표준편차 .57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평균 2.411, 표준편차 .674, 정보추구욕구는 평균

2.772, 표준편차 .896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N=1,895)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디지털기기 접근성	2.993	.917	.953	.902
	디지털 조력	2.487	.565	-.198	-.205
종속변수	정보활용	1.831	.570	.634	-.593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2.411	.674	-.048	-.657
	정보추구욕구	2.772	.896	-.245	-.694

다음으로,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조사하여 각각의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기준은 절대값 2 이하, 첨도의 기준은 절대값 7 이하이다. 분석결과, 왜도는 -.245과 .953 사이, 첨도는 -.694와 .902 사이에 분포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요 변인의 차이

#### 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기기 접근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기기 접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ANOVA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디지털기기 접근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1.197, p>0.05$ ). 그러나 연령에 따른 디지털기기 접근성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 $F=28.784, p<0.001$ ), 19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

록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디지털기기 접근성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31.248, p<0.001$ ),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높은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기기 접근성 (N=1,895)

구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1314	3.010	.918	1.197
	여	581	2.955	.912	
연령	19~29세 <sup>a</sup>	192	3.385	.985	28.784 <sup>***</sup> (a>b,c,d,>e)
	30대 <sup>b</sup>	232	3.147	.890	
	40대 <sup>c</sup>	375	3.059	.873	
	50대 <sup>d</sup>	512	3.068	.980	
	60대 이상 <sup>e</sup>	584	2.695	.78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sup>a</sup>	115	2.722	.894	31.248 <sup>***</sup> (d>c>a)
	중학교 졸업 <sup>b</sup>	314	2.764	.888	
	고등학교 졸업 <sup>c</sup>	1093	2.963	.865	
	대학교 졸업 이상 <sup>d</sup>	373	3.357	.986	
월 소득	100만원 미만 <sup>a</sup>	229	2.777	.917	24.428 <sup>***</sup> (f>e>b)
	100~199만원 <sup>b</sup>	325	2.702	.778	
	200~299만원 <sup>c</sup>	409	2.971	.891	
	300~399만원 <sup>d</sup>	391	2.974	.925	
	400~499만원 <sup>e</sup>	259	3.147	.912	
	500만원 이상 <sup>f</sup>	282	3.422	.914	
거주지역	시	1824	3.010	.918	4.177 <sup>***</sup>
	군	71	2.549	.752	
장애 유형	지체장애 <sup>a</sup>	1146	2.983	.913	3.640 <sup>*</sup> (d)>b,c)
	뇌병변 장애 <sup>b</sup>	247	2.927	.833	
	시각 장애 <sup>c</sup>	260	2.939	.949	
	청각/언어 장애 <sup>d</sup>	242	3.165	.963	
장애 정도	중증	443	2.919	.911	-1.953
	경증	1452	3.016	.917	
장애 시기	선천	627	3.014	.968	.708
	후천	1268	2.983	.890	

\*  $p<0.05$ , \*\*  $p<0.01$ , \*\*\*  $p<0.001$

월 소득에 따른 디지털기기 접근성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4.428$ ,  $p<0.001$ ), 월 소득 10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보다 4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일 때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일 때 보다 500만원 이상일 때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t=4.177$ ,  $p<0.001$ ), 시 거주 집단이 군 거주 집단과 비교해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디지털기기 접근성 차이 또한 유의미했으며( $F= 3.640$ ,  $p<0.05$ ), 청각/언어 장애인이 뇌병변, 시각장애인 보다 높은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장애 정도에 따른 디지털기기 접근성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t=-1.953$ ,  $p>0.05$ ), 장애 시기에 따른 디지털기기 접근성 차이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708$ ,  $p>0.05$ ).

#### 나.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조력

디지털 조력 요인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ANOVA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디지털 조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며( $t=2.808$ ,  $p<0.01$ ), 남성이 인식하는 디지털 조력 수준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디지털 조력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37.055$ ,  $p<0.001$ ), 19세 이상 29세 이하, 30대, 40대 집단이 인식하는 디지털 조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50대,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 이용 시 도움을 줄 조력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디지털 조력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44.339$ ,  $p<0.001$ ),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인식하는 디지털 조력 수준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마지막으로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디지털 조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조력

(N=1,895)

구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1314	2.511	.567	2.808**
	여	581	2.433	.555	
연령	19~29세 <sup>a</sup>	192	2.681	.540	37.055*** (a,b,c,>d>e)
	30대 <sup>b</sup>	232	2.670	.496	
	40대 <sup>c</sup>	375	2.617	.516	
	50대 <sup>d</sup>	512	2.460	.551	
	60대 이상 <sup>e</sup>	584	2.292	.57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sup>a</sup>	115	2.287	.632	44.339*** (d>c>a,b)
	중학교 졸업 <sup>b</sup>	314	2.280	.572	
	고등학교 졸업 <sup>c</sup>	1093	2.486	.538	
	대학교 졸업 이상 <sup>d</sup>	373	2.728	.519	
월 소득	100만원 미만 <sup>a</sup>	229	2.186	.607	44.609*** (f>c>a,b)
	100~199만원 <sup>b</sup>	325	2.284	.564	
	200~299만원 <sup>c</sup>	409	2.474	.542	
	300~399만원 <sup>d</sup>	391	2.539	.483	
	400~499만원 <sup>e</sup>	259	2.650	.525	
	500만원 이상 <sup>f</sup>	282	2.764	.502	
거주지역	시	1824	2.494	.563	2.488*
	군	71	2.324	.583	
장애 유형	지체장애 <sup>a</sup>	1146	2.484	.572	2.795* (c>b)
	뇌병변 장애 <sup>b</sup>	247	2.408	.568	
	시각 장애 <sup>c</sup>	260	2.540	.518	
	청각/언어 장애 <sup>d</sup>	242	2.528	.565	
장애 정도	중증	443	2.420	.557	-2.859**
	경증	1452	2.508	.565	
장애 시기	선천	627	2.467	.564	-1.096
	후천	1268	2.497	.565	

\*  $p < 0.05$ , \*\*  $p < 0.01$ , \*\*\*  $p < 0.001$

월 소득에 따른 디지털 조력 수준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44.609$ ,  $p < 0.001$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보다 200만원 이

상 299만원 이하일 때 디지털 조력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500만원 이상일 때 디지털 조력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조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t=2.488, p<0.05$ ), 시 거주 집단이 군 거주 집단과 비교해 디지털 조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디지털 조력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였으며( $F= 2.795, p<0.05$ ), 뇌병변 장애인과 비교해 시각 장애인이 디지털 조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 정도에 디지털 조력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으며( $t=-2.859, p<0.01$ ), 경증 장애인이 인식하는 디지털 조력 수준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 시기에 따른 디지털 조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1.096, p>0.05$ ).

#### 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활용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ANOVA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다.

우선,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3.261, p<0.01$ ), 남성이 여성과 비교해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4.677, p<0.001$ ),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 집단에서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40대 집단, 세 번째로 50대 집단,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집단의 순서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68.830, p<0.001$ ),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인식

하는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마지막으로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이 인식하는 정보활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활용

(N=1,895)

구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1314	1.859	.570	3.261**
	여	581	1.767	.565	
연령	19~29세 <sup>a</sup>	192	2.137	.583	64.677*** (a>c>d>e)
	30대 <sup>b</sup>	232	2.044	.544	
	40대 <sup>c</sup>	375	1.992	.544	
	50대 <sup>d</sup>	512	1.776	.549	
	60대 이상 <sup>e</sup>	584	1.589	.49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sup>a</sup>	115	1.641	.614	68.830*** (d>c>a,b)
	중학교 졸업 <sup>b</sup>	314	1.614	.509	
	고등학교 졸업 <sup>c</sup>	1093	1.800	.540	
	대학교 졸업 이상 <sup>d</sup>	373	2.160	.546	
월 소득	100만원 미만 <sup>a</sup>	229	1.632	.512	28.348*** (e,f>c>a)
	100~199만원 <sup>b</sup>	325	1.676	.554	
	200~299만원 <sup>c</sup>	409	1.833	.602	
	300~399만원 <sup>d</sup>	391	1.782	.553	
	400~499만원 <sup>e</sup>	259	1.995	.524	
	500만원 이상 <sup>f</sup>	282	2.084	.512	
거주지역	시	1824	1.833	.570	1.021
	군	71	1.763	.549	
장애 유형	지체장애 <sup>a</sup>	1146	1.845	.571	3.969** (d>c)
	뇌병변 장애 <sup>b</sup>	247	1.802	.565	
	시각 장애 <sup>c</sup>	260	1.734	.559	
	청각/언어 장애 <sup>d</sup>	242	1.893	.563	
장애 정도	중증	443	1.750	.572	-3.420**
	경증	1452	1.855	.566	
장애 시기	선천	627	1.878	.614	2.451*
	후천	1268	1.807	.544	

\*  $p < 0.05$ , \*\*  $p < 0.01$ , \*\*\*  $p < 0.001$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은 월 소득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8.348$ ,  $p<0.001$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보다 200만원 이상 299만원 이하일 때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4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일 때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1.021$ ,  $p>0.05$ ). 반면, 장애 유형에 따라 인식하는 자신의 정보활용수준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F=3.969$ ,  $p<0.01$ ), 청각/언어 장애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이 시각 장애인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장애 정도에 따른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t=-3.420$ ,  $p<0.01$ ), 경증장애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에 대한 인식은 장애 시기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t=2.451$ ,  $p<0.05$ ), 선천적 장애를 가진 집단이 인식하는 자신의 정보활용수준이 후천적 장애를 가진 집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라.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ANOVA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t=3.041$ ,  $p<0.01$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80.369$ ,  $p<0.001$ ),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 집단이 인식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40대 집단이 높았다. 이후 순차적으로 50대 집단, 60대 이상 집단의 순서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82.175$ ,  $p<0.001$ ),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인식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마지막으로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6〉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

( $N=1,895$ )

구분	항목	<i>n</i>	평균	표준편차	<i>t/F</i>
성별	남	1314	2.442	.681	3.041**
	여	581	2.340	.652	
연령	19~29세 <sup>a</sup>	192	2.772	.622	80.369*** (a)>(c)>(d)>(e)
	30대 <sup>b</sup>	232	2.750	.623	
	40대 <sup>c</sup>	375	2.601	.611	
	50대 <sup>d</sup>	512	2.338	.632	
	60대 이상 <sup>e</sup>	584	2.099	.6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sup>a</sup>	115	2.065	.638	82.175*** (d)>(c)>(a), (b)
	중학교 졸업 <sup>b</sup>	314	2.126	.654	
	고등학교 졸업 <sup>c</sup>	1093	2.392	.646	
	대학교 졸업 이상 <sup>d</sup>	373	2.810	.578	
월 소득	100만원 미만 <sup>a</sup>	229	2.274	.646	49.730*** (f, e)>(d)>(b)
	100~199만원 <sup>b</sup>	325	2.129	.633	
	200~299만원 <sup>c</sup>	409	2.261	.679	
	300~399만원 <sup>d</sup>	391	2.424	.607	
	400~499만원 <sup>e</sup>	259	2.686	.631	
	500만원 이상 <sup>f</sup>	282	2.792	.597	
거주지역	시	1824	2.412	.675	.296
	군	71	2.387	.648	
장애 유형	지체장애 <sup>a</sup>	1146	2.430	.669	3.780* (d)>(b)
	뇌병변 장애 <sup>b</sup>	247	2.322	.668	
	시각 장애 <sup>c</sup>	260	2.339	.651	
	청각/언어 장애 <sup>d</sup>	242	2.487	.715	
장애 정도	중증	443	2.388	.693	-.816
	경증	1452	2.418	.668	
장애 시기	선천	627	2.380	.687	1.389
	후천	1268	2.426	.667	

\* $p<0.05$ , \*\* $p<0.01$ , \*\*\* $p<0.001$

월 소득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 $F=49.730$ ,  $p<0.001$ ), 월 소득 10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보다 300만원 이상 399만원 이하일 때 인식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4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일 때 인식하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296$ ,  $p>0.05$ ). 반면, 장애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F=3.780$ ,  $p<0.05$ ), 청각/언어 장애인이 인식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뇌병변 장애인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장애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t=-.816$ ,  $p>0.05$ ), 장애 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t=1.389$ ,  $p>0.05$ ).

#### 마.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추구욕구

또 다른 매개변수인 정보추구욕구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ANOVA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7>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t=1.362$ ,  $p>0.05$ ). 그러나, 연령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63.115$ ,  $p<0.001$ ),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 집단에서 인식하는 정보추구욕구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40대 집단이 높았다. 이후 순차적으로 50대 집단, 60대 이상 집단의 순서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정보추구욕구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69.970$ ,  $p<0.001$ ),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인식하는 정보추구욕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마지막으로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추구욕구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7〉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추구욕구

(N=1,895)

구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	1314	2.790	.902	1.362
	여	581	2.729	.882	
연령	19~29세 <sup>a</sup>	192	3.281	.831	63.115*** (a>c>d>e)
	30대 <sup>b</sup>	232	3.144	.849	
	40대 <sup>c</sup>	375	2.979	.830	
	50대 <sup>d</sup>	512	2.671	.873	
	60대 이상 <sup>e</sup>	584	2.411	.82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sup>a</sup>	115	2.370	.907	69.970*** (d>c>a,b)
	중학교 졸업 <sup>b</sup>	314	2.338	.806	
	고등학교 졸업 <sup>c</sup>	1093	2.788	.874	
	대학교 졸업 이상 <sup>d</sup>	373	3.211	.803	
월 소득	100만원 미만 <sup>a</sup>	229	2.573	.828	22.052*** (f>a,b)
	100~199만원 <sup>b</sup>	325	2.529	.891	
	200~299만원 <sup>c</sup>	409	2.644	.972	
	300~399만원 <sup>d</sup>	391	2.827	.825	
	400~499만원 <sup>e</sup>	259	2.971	.841	
	500만원 이상 <sup>f</sup>	282	3.137	.825	
거주지역	시	1824	2.768	.901	-.873
	군	71	2.863	.755	
장애 유형	지체장애 <sup>a</sup>	1146	2.785	.909	1.010
	뇌병변 장애 <sup>b</sup>	247	2.700	.899	
	시각 장애 <sup>c</sup>	260	2.733	.846	
	청각/언어 장애 <sup>d</sup>	242	2.820	.886	
장애 정도	중증	443	2.753	.904	-.501
	경증	1452	2.777	.894	
장애 시기	선천	627	2.801	.889	.995
	후천	1268	2.757	.9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월 소득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2.052$ ,  $p < 0.001$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보다 500만원 이상일 때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873$ ,  $p > 0.05$ ).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1.010$ ,

$p > 0.05$ ), 장애 정도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 $t = -.501, p > 0.05$ ). 마지막으로, 장애 시기에 따른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인식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t = .995, p > 0.05$ ).

#### 4. 주요 연구변인의 상관분석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양상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8>과 같다.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은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r = .384, p < 0.01$ ), 디지털 조력( $r = .337,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r = .391, p < 0.01$ ), 정보추구욕구( $r = .448, p < 0.01$ )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r = .276, p < 0.01$ ), 디지털 조력( $r = .446,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 다른 매개변수인 정보추구욕구의 경우도 디지털기기 접근성( $r = .173, p < 0.01$ ), 디지털 조력( $r = .360,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과 관련하여 연구에 활용된 모든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수 값이 0.9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현, 2007).

〈표 4-8〉 주요 연구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1	11-2	11-3	11-4	12	13
1	1															
2	.205**	1														
3	.384**	.337**	1													
4	.276**	.446**	.391**	1												
5	.173**	.360**	.448**	.539**	1											
6	-.027	-.064	-.075	-.070	-.031	1										
7	-.218*	-.256*	-.338*	-.370*	-.339*	.013	1									
8	.201**	.243**	.281**	.322**	.299**	-.073*	-.340*	1								
9	.230**	.322**	.248**	.311**	.226**	.036	-.324*	.398**	1							
10	-.096*	-.057	-.023	-.007	.020	.044	.036	-.052*	.038	1						
11-1	-.013	-.007	.032	.036	.019	-.069**	.160**	.041	-.005	-.005	1					
11-2	-.028	-.054*	-.019	-.051*	-.031	.001	-.125**	-.079**	-.019	-.027	-.479**	1				
11-3	-.024	.037	-.068**	-.043	-.017	.024	-.073**	-.001	.010	.010	-.493**	-.154**	1			
11-4	.072**	.027	.042	.043	.021	.075**	-.032	.020	.015	.024	-.473**	-.148**	-.153**	1		
12	.045	.066*	.078*	.019	.012	.045*	-.012	.182**	.215**	.030	.025	-.042	.017	-.013	1	
13	-.016	.025	-.059*	.032	-.023	.013	.118**	.140**	.101**	.003	.058*	-.014	-.046*	-.023	.181**	1

\* $p < 0.05$ , \*\* $p < 0.01$

1: 디지털기기 접근성, 2: 디지털 조력, 3: 정보활용, 4: 자기효능감, 5: 정보추구욕구, 6: 성별, 7: 연령, 8: 학력, 9: 월 소득, 10: 거주지역, 11-1: 지체장애, 11-2: 뇌병변 장애, 11-3: 시각 장애, 11-4: 청각/언어 장애, 12: 장애 정도, 13: 장애 시기

## 5. 모형 및 가설의 검증

### 가. 신체장애 성인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신체장애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 디지털 조력 요인을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가장 적합한 통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4-9>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표이다.

1단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한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21.4%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성별( $t=-2.808$ ,  $p<0.01$ ), 연령( $t=-12.241$ ,  $p<0.001$ ), 학력( $t=6.518$ ,  $p<0.001$ ), 월 소득( $t=7.153$ ,  $p<0.001$ ), 장애 정도( $t=-2.536$ ,  $p<0.05$ ), 장애 유형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를 기준으로 보았으며, 뇌병변장애( $t=-3.860$ ,  $p<0.001$ )와 시각장애( $t=-3.424$ ,  $p<0.01$ )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체장애와 비교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과 월 소득이 높고,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보다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1단계의 공차 한계는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23.6%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추가로 투입된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 $t=7.460$ ,  $p<0.001$ )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과 월 소득이 높고,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2단계의 공차한계는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387		<b>27.096***</b>	2.064		<b>21.269***</b>	1.272		<b>12.087***</b>	
인구사회학적	성별	-.084	-.058	<b>-2.808**</b>	-.079	-.054	<b>-2.659**</b>	-.050	-.034	-1.793
	연령	-.146	-.284	<b>-12.241***</b>	-.135	-.262	<b>-11.389***</b>	-.112	-.218	<b>-9.949***</b>
	학력	.134	.154	<b>6.518***</b>	.123	.141	<b>6.017***</b>	.103	.118	<b>5.336***</b>
	월 소득	.071	.166	<b>7.153***</b>	.060	.142	<b>6.108***</b>	.030	.070	<b>3.134**</b>
	거주지역	.027	.008	.371	.079	.022	1.099	.131	.037	1.928
	뇌병변	-.165	-.083	<b>-3.860***</b>	-.154	-.077	<b>-3.655***</b>	-.120	-.060	<b>-3.001**</b>
	시각	-.142	-.072	<b>-3.424**</b>	-.132	-.067	<b>-3.0232**</b>	-.146	-.075	<b>-3.793***</b>
	청각/언어	.019	.009	.443	.001	.000	.017	-.007	-.003	-.177
	장애 정도	-.086	-.054	<b>-2.536*</b>	-.087	-.055	<b>-2.594*</b>	-.085	-.054	<b>-2.704**</b>
	장애 시기	.048	.033	1.565	.054	.038	1.803	.049	.034	1.715
디지털기기 접근성				.116	.158	<b>7.460***</b>	.092	.126	<b>6.285***</b>	
디지털 조력							.376	.315	<b>15.271***</b>	
$R^2$	.218			.241			.324			
adj. $R^2$	.214			.236			.320			
F	<b>52.557***</b>			<b>54.225***</b>			<b>75.268***</b>			
공차한계	.740-.989			.752-.979			.719-.977			
VIF	1.011-1.351			1.021-1.359			1.024-1.390			

\* $p<0.05$ , \*\* $p<0.01$ , \*\*\* $p<0.001$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디지털 조력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32.0%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성별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추가로 투입된 디지털 조력( $t=15.271$ ,  $p<0.001$ ) 요인도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고 학력과 월 소득이 높으며, 장애 정도가 강할수록,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졌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3단계의 공차한계 또한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2는 지지되었다.

#### 나.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추구욕구 영향요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추구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추구욕구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 디지털 조력 요인을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0>은 정보추구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표이다.

1단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한 것으로, 정보추구욕구를 16.1%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연령( $t=-10.909$ ,  $p<0.001$ ), 학력( $t=7.651$ ,  $p<0.001$ ), 월 소득( $t=3.164$ ,  $p<0.01$ ), 장애 유형 요인이 정보추구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를 기준으로 보았으며, 뇌병변장애( $t=-2.574$ ,  $p<0.01$ )와 시각장애( $t=-2.166$ ,  $p<0.05$ )가 정보추구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체장애와 비교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추구욕구가 높으며,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추구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1단계의 공차 한계는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정보추구욕구 영향요인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759		<b>22.789***</b>	2.566		<b>19.012***</b>	1.694		<b>11.316***</b>	
인구사회학적	성별	-.028	-.015	-.684	-.025	-.013	-.604	.007	.003	.164
	연령	-.179	-.261	<b>-10.909***</b>	-.172	-.251	<b>-10.450***</b>	-.147	-.215	<b>-9.172***</b>
	학력	.217	.187	<b>7.651***</b>	.210	.181	<b>7.400***</b>	.188	.162	<b>6.855***</b>
	월 소득	.043	.076	<b>3.164**</b>	.037	.065	<b>2.677**</b>	.003	.006	.239
	거주지역	.177	.038	1.775	.208	.044	<b>2.082*</b>	.266	.056	<b>2.746**</b>
	뇌병변	-.152	-.057	<b>-2.574**</b>	-.145	-.054	<b>-2.468*</b>	-.107	-.040	-1.882
	시각	-.123	-.047	<b>-2.166*</b>	-.117	-.045	<b>-2.067*</b>	-.133	-.051	<b>-2.426*</b>
	청각/언어	-.024	-.009	-.416	-.035	-.013	-.602	-.044	-.016	-.774
	장애 정도	-.085	-.040	-1.823	-.085	-.040	-1.836	-.084	-.040	-1.868
	장애 시기	-.041	-.022	-.989	-.037	-.020	-.898	-.044	-.023	-1.082
디지털기기 접근성				.069	.071	<b>3.210**</b>	.044	.045	<b>2.086*</b>	
디지털 조력							.414	.261	<b>11.819***</b>	
$R^2$	.165			.170			.227			
adj. $R^2$	.161			.165			.222			
F	<b>37.314***</b>			<b>35.026***</b>			<b>46.112***</b>			
공차한계	.740-.989			.736-.979			.719-.977			
VIF	1.011-1.351			1.021-1.359			1.024-1.390			

\*  $p < 0.05$ , \*\*  $p < 0.01$ , \*\*\*  $p < 0.001$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정보추구욕구를 16.5%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던 거주지역 요인( $t=2.082$ ,  $p < 0.05$ )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로 투입된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 $t=3.210$ ,  $p < 0.01$ )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과 월 소득이 높고, 군보다는 시에 거주할수록,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추구욕구가 높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을수록 정보추구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2단계의 공차 한계는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디지털 조력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정보추구욕구를 22.2%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월 소득 요인과 장애 유형 요인 중 뇌병변 유형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추가로 투입된 디지털 조력( $t=11.819$ ,  $p<0.001$ ) 요인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고, 학력이 높으며, 군보다는 시에 거주할수록,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질수록 정보추구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고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추구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3단계의 공차한계 또한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과 4는 지지되었다.

#### 다.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영향요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활용을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 요인을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은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표이다.

1단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한 것으로, 정보활용을 17.0%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성별( $t=-3.014$ ,  $p<0.01$ ), 연령( $t=-10.780$ ,  $p<0.001$ ), 학력( $t=5.909$ ,  $p<0.001$ ), 월 소득( $t=4.544$ ,  $p<0.001$ ), 장애 시기( $t=-3.248$ ,  $p<0.01$ ), 장애 유형 요인이 정보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를 기준으로 보았으며, 뇌병변장애( $t=-2.307$ ,  $p<0.05$ )와 시각장애( $t=-4.418$ ,  $p<0.001$ )가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체장애와 비교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성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과 월 소득이 높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을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으며, 뇌병변

장애와 시각장애보다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활용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1 단계의 공차 한계는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정보활용을 24.7%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 중 뇌병변 장애 유형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추가로 투입된 디지털기기 접근성 요인 ( $t=13.948$ ,  $p<0.001$ )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과 월 소득이 높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을수록,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활용수준이 높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을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단계의 공차 한계는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디지털 조력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정보활용을 28.1%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2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월 소득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단계까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던 장애 정도 요인 ( $t=2.027$ ,  $p<0.05$ )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로 투입된 디지털 조력( $t=9.500$ ,  $p<0.001$ ) 요인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나이가 적으며, 학력이 높고, 장애 정도가 약하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질수록,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단계의 공차 한계 또한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정보활용 영향요인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1.852		<b>24.230***</b>	1.346		<b>16.546***</b>	.918		<b>10.051***</b>	.742		<b>7.924***</b>	.571		<b>6.231***</b>	
인구 사회 학적	성별	-.079	-.064	<b>-3.014***</b>	-.070	-.057	<b>-2.811***</b>	-.054	-.044	<b>-2.237***</b>	-.048	-.039	<b>-1.974*</b>	-.053	-.043	<b>-2.293*</b>
	연령	-.111	-.257	<b>-10.780***</b>	-.094	-.217	<b>-9.492***</b>	-.082	-.189	<b>-8.375***</b>	-.066	-.153	<b>-6.700***</b>	-.052	-.119	<b>-5.355***</b>
	학력	.106	.144	<b>5.909***</b>	.087	.119	<b>5.112***</b>	.077	.104	<b>4.581***</b>	.062	.085	<b>3.749***</b>	.040	.054	<b>2.461*</b>
	월 소득	.039	.109	<b>4.544***</b>	.023	.063	<b>2.718**</b>	.006	.017	.732	.002	.005	.234	.004	.011	.521
	거주지역	-.029	-.010	-.459	.053	.018	.874	.081	.027	1.369	.063	.021	1.074	.029	.010	.522
	뇌병변	-.086	-.051	<b>-2.307*</b>	-.069	-.041	-1.939	-.050	-.030	-1.441	-.033	-.020	-.972	-.026	-.016	-.791
	시각	-.159	-.096	<b>-4.418***</b>	-.143	-.087	<b>-4.189***</b>	-.151	-.091	<b>-4.515***</b>	-.131	-.079	<b>-3.945***</b>	-.122	-.074	<b>-3.798***</b>
	청각/언어	.019	.011	.506	-.010	-.006	-.276	-.014	-.008	-.404	-.013	-.008	-.380	-.006	-.004	-.186
	장애 정도	.056	.042	1.899	.055	.041	1.953	.056	.041	<b>2.027*</b>	.067	.050	<b>2.485*</b>	.074	.055	<b>2.819**</b>
장애 시기	-.086	-.071	<b>-3.248**</b>	-.076	-.062	<b>-3.006**</b>	-.079	-.065	<b>-3.198**</b>	-.085	-.071	<b>-3.513***</b>	-.073	-.061	<b>-3.127**</b>	
디지털 접근성				.182	.293	<b>13.948***</b>	.169	.273	<b>13.215***</b>	.156	.252	<b>12.240***</b>	.158	.254	<b>12.768***</b>	
디지털 조력							.203	.202	<b>9.500***</b>	.151	.150	<b>6.747***</b>	.115	.114	<b>5.275***</b>	
자기효능감										.139	.164	<b>7.012***</b>	.046	.055	<b>2.235*</b>	
정보추구욕구													.171	.269	<b>11.769***</b>	
R <sup>2</sup>	.174			.252			.286			.304			.352			
adj. R <sup>2</sup>	.170			.247			.281			.299			.347			
F	<b>39.790***</b>			<b>57.574***</b>			<b>62.798***</b>			<b>63.233***</b>			<b>72.902***</b>			
공차한계	.772-.989			.756-.980			.693-.975			.653-.976			.566-.973			
VIF	1.021-1.296			1.021-1.323			1.023-1.443			1.025-1.533			1.028-1.765			

\*  $p < 0.05$ , \*\*  $p < 0.01$ , \*\*\*  $p < 0.001$

4단계에서는 3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정보활용을 29.9%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3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추가로 투입된 자기효능감 요인( $t=7.012$ ,  $p<0.001$ )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나이가 적으며, 학력이 높고, 장애 정도가 약하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질수록,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활용수준이 높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에서는 4단계에 포함된 요인에 매개변수인 정보추구욕구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정보활용을 34.7%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4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추가로 투입된 정보추구욕구 요인( $t=11.769$ ,  $p<0.001$ )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나이가 적으며, 학력이 높고, 장애 정도가 약하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질수록, 시각장애보다는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고,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높을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5단계의 공차 한계 또한 모든 요인에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계수 또한 모든 요인에서 1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와 6, 7, 8은 지지되었다.

#### **라.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를 매개변수로 동시에 투입해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표 4-12〉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관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i>coeff.</i>	<i>se</i>	<i>t</i>	<i>p</i>	<i>LLCI</i>	<i>ULCI</i>
매개변수 모형 1 (결과변수: 자기효능감)							
	(상수)	2.064	.097	21.269	.000***	1.873	2.254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079	.030	-2.659	.008**	-.137	-.021
	연령	-.135	.012	-11.389	.000***	-.158	-.112
	학력	.123	.020	6.017	.000***	.083	.163
	월 소득	.061	.010	6.108	.000***	.041	.080
	거주지역	.079	.072	1.099	.272	-.062	.220
	뇌병변	-.154	.042	-3.655	.000***	-.237	-.072
	시각	-.132	.041	-3.232	.001**	-.212	-.052
	청각/언어	.001	.042	.017	.987	-.082	.083
	장애 정도	-.087	.034	-2.594	.010*	-.152	-.021
장애 시기	.054	.030	1.803	.072	-.005	.113	
독립 변수	디지털기기 접근성	.116	.016	7.460	.000***	.086	.147
$F=54.225(p<.001), R^2=.241$							
매개변수 모형 2 (결과변수: 정보추구욕구)							
	(상수)	2.566	.135	19.012	.000***	2.301	2.831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025	.041	-.604	.546	-.106	.056
	연령	-.172	.017	-10.450	.000***	-.204	-.140
	학력	.210	.028	7.400	.000***	.154	.265
	월 소득	.037	.014	2.677	.008**	.010	.064
	거주지역	.209	.100	2.082	.038*	.012	.405
	뇌병변	-.145	.059	-2.468	.014*	-.260	-.030
	시각	-.117	.057	-2.067	.039*	-.229	-.006
	청각/언어	-.035	.058	-.602	.547	-.150	.079
	장애 정도	-.086	.047	-1.837	.066	-.177	.006
장애 시기	-.038	.042	-.898	.369	-.119	.044	
독립 변수	디지털기기 접근성	.069	.022	3.210	.001**	.027	.112
$F=35.026(p<.001), R^2=.170$							
종속변수 모형 (결과변수: 정보활용)							
	(상수)	.729	.087	8.372	.000***	.558	.900
인구	성별	-.060	.023	-2.550	.011*	-.106	-.014
	연령	-.053	.010	-5.467	.000***	-.072	-.034

사회 학적 요인	학력	.040	.016	2.473	.014*	.008	.072
	월 소득	.011	.008	1.454	.146	-.004	.027
	거주지역	.009	.057	.162	.872	-.102	.120
	뇌병변	-.031	.033	-.930	.352	-.096	.034
	시각	-.112	.032	-3.491	.001**	-.176	-.049
	청각/언어	-.003	.033	-.103	.918	-.068	.061
	장애 정도	.077	.026	2.907	.004**	.025	.128
	장애 시기	-.073	.024	-3.079	.002**	-.119	-.026
독립 변수	디지털기기 접근성	.161	.012	12.953	.000***	.136	.185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073	.020	3.640	.000***	.034	.113
	정보추구욕구	.181	.015	12.541	.000***	.153	.210
$F=75.295(p<.001), R^2=.342$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 모형에서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자기효능감 ( $coeff.=.116, p<0.001$ )과 정보추구욕구( $coeff.=.069,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모형에서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 $coeff.=.073, p<0.001$ )과 정보추구욕구( $coeff.=.181, p<0.001$ )가 정보활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coeff.=.161, p<0.001$ ) 또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보이는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수는 .009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정보추구욕구의 매개효과 계수는 .013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추구욕구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9와 11은 지지되었다.

〈표 4-13〉 효과분해와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182	.013	.156	.207
직접효과	.161	.012	.136	.185
자기효능감	.009	.003	.004	.014
정보추구욕구	.013	.004	.005	.021

마.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를 매개변수로 동시에 투입해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표 4-14〉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관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coeff.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 1 (결과변수: 자기효능감)							
(상수)	1.493	.100	14.914	.000***	1.297	1.690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054	.028	-1.889	.059	-.109	.000
	연령	-.120	.011	-10.592	.000***	-.142	-.098
	학력	.111	.019	5.728	.000***	.073	.149
	월 소득	.037	.010	3.865	.000***	.018	.056
	거주지역	.092	.068	1.346	.178	-.042	.226
	뇌병변	-.127	.040	-3.149	.002**	-.206	-.048
	시각	-.154	.039	-3.971	.000***	-.231	-.078
	청각/언어	.007	.040	.175	.861	-.071	.085
	장애 정도	-.085	.032	-2.657	.008**	-.147	-.022
장애 시기	.043	.029	1.511	.131	-.013	.099	
독립 변수	디지털 조력	.392	.025	15.846	.000***	.344	.441

$$F=76.947(p<.001), R^2=.310$$

매개변수 모형 2 (결과변수: 정보추구욕구)							
	(상수)	1.799	.141	12.741	.000***	1.522	2.076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005	.040	.126	.900	-.073	.083
	연령	-.151	.016	-9.448	.000***	-.182	-.119
	학력	.192	.027	7.010	.000***	.138	.246
	월 소득	.007	.014	.489	.625	-.020	.033
	거주지역	.247	.096	2.565	.010*	.058	.436
	뇌병변	-.110	.057	-1.941	.053	-.222	.001
	시각	-.137	.055	-2.497	.013*	-.245	-.029
	청각/언어	-.037	.056	-.657	.511	-.148	.074
	장애 정도	-.084	.045	-1.859	.063	-.172	.005
	장애 시기	-.046	.040	-1.145	.253	-.125	.033
독립 변수	디지털 조력	.422	.035	12.089	.000***	.354	.490
$F=49.820(p<.001), R^2=.225$							
종속변수 모형 (결과변수: 정보활용)							
	(상수)	.896	.092	9.780	.000***	.717	1.076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057	.024	-2.346	.019*	-.104	-.009
	연령	-.061	.010	-6.058	.000***	-.080	-.041
	학력	.050	.017	2.994	.003**	.017	.084
	월 소득	.015	.008	1.810	.071	-.001	.031
	거주지역	-.040	.059	-.679	.497	-.155	.075
	뇌병변	-.034	.035	-.984	.326	-.102	.034
	시각	-.130	.033	-3.911	.000***	-.196	-.065
	청각/언어	.017	.034	.509	.611	-.050	.084
	장애 정도	.078	.027	2.852	.004**	.024	.131
	장애 시기	-.084	.024	-3.441	.001**	-.132	-.036
독립 변수	디지털 조력	.129	.023	5.676	.000***	.084	.174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082	.021	3.840	.000***	.040	.124
	정보추구욕구	.169	.015	11.200	.000***	.140	.199
$F=60.738(p<.001), R^2=.296$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 모형에서 디지털 조력은 자기효능감 ( $coeff.=.392, p<0.001$ )과 정보추구욕구( $coeff.=.422, p<0.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모형에서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 $coeff.=.082, p<0.001$ )과 정보추구욕구( $coeff.=.169, p<0.001$ )가 정보활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 $coeff.=.129, p<0.001$ )

또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보이는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4-15>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수는 .032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정보추구욕구의 매개효과 계수는 .071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추구욕구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0과 12는 지지되었다.

<표 4-15> 효과분해와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233	.022	.189	.276
직접효과	.129	.023	.084	.174
자기효능감	.032	.009	.016	.050
정보추구욕구	.071	.009	.054	.090

## V. 결론 및 논의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접근성 및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다중 매개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를 통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에서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경로를 검증하고,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에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 이론을 근간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신체장애 성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1,895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314명(69.3%), 여성 581명(30.7%)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584명(30.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93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100만원 이상~299만원 이하가 409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시(1,824명, 96.3%)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1,146명(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 정도는 경증 장애인 1,452명(76.6%), 중증 장애인 443명(23.4%)으로 경증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 시기의 경우 후천적 장애 1,268명(66.9%), 선천적 장애 627명(33.1%)으로, 상대적으로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이다.

첫 번째로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이 신체장애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t=3.261, p<0.01$ ), 연령( $F=64.677, p<0.001$ ), 학력( $F=68.830, p<0.001$ ), 월 소득( $F=28.348, p<0.001$ ), 장애 유형( $F=3.969, p<0.01$ ), 장애 정도( $t=-2.840, p<0.001$ ), 장애 시기( $t=2.451, p<0.05$ ) 요인에 따른 정보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거주지역( $t=1.021, p>0.05$ ) 요인에 따른 정보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신체장애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가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과 관련된 신체장애 성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적절한 디지털 조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결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추구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요인 모두 정보추구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과 4가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추구욕구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양의 디지털기기 보유와 주변의 다양한 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결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와 6, 7, 8이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결과이며, 기술에 대한 신체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 수준에 따라 정보활용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신체장애 성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와 11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향상에 있어 기술에 대한 보유 여부와 더불어 기술 및 기기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의 중요성을 밝힌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디지털 조력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0과 1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디지털 조력과 더불어 심리적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구분	가설	검증결과
H1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디지털 조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정보추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디지털 조력은 정보추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디지털 조력은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7	자기효능감은 정보활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	정보추구욕구는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9	자기효능감은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H10	자기효능감은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H11	정보추구욕구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H12	정보추구욕구는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채택

## 2. 논의

본 연구는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에 있어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정보활용수준의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 간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가설검증결과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체장애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인 신체장애인이 인식하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즉, 기술 보유 여부와 기술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술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가하는 노력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디어의 보유 및 기본적인 역량과 관련된 접근과 통제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김경희와 유수정(2020)의 연구결과와, ICT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데 ICT 기기 보유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Li와 그의 동료들(202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디지털 조력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밝힌 김양이와 이연숙(2017)의 연구결과와 디지털 조력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노병일과 심희숙(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추구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과 매개 변수인 정보추구욕구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은 정보추구욕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인 신체장애인이 인식하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에 대한 정보추구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충분한 양의 디지털기기 보유와 주변의 다양한 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조력이 기술에 대한 장점과 활용성의 인식을 돕고, 두려움을 낮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밝힌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을수록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관심과 관련된 기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김지혜(2021)의 연구결과와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욕구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태도가 높아지는 것을 밝힌 하승희(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물질적 자원이 개인의 정보공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김종기와 김진성(2011)의 연구와 비공식적 및 공식적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된 촉진조건이 높을수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필요성과 같은 인식 태도가 향상된다고 고대선(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관련된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은 정보활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체장애 성인이 인식하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활용 수준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적절한 디지털 조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기기의 보유와 인터넷의 적절한 연결을 의미하는 ‘물질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망과 그들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 조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요인’이 인터넷 활용수준 및 활용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Scheerder, van Deursen, van Dijk(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디지털기기 접근성에의 차이가 1차 정보격차를 발생시킴과 더불어 ICT의 활용과 참여를 비롯한 2차 정보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황용석과 박남수, 이현주, 이원태(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새로운 기기의 구매와 기술의 사용에 있어 주변의 사회적 관계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Lee와 Coughili(2015)의 연구와, 노인의 디지털기기 및 기술 활용 능력에 다른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황현정과 황용석(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와 종속변수인 정보활용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정보활용을 유익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가지는 긍정적인 자기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정보기술 활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Taylor와 Todd(2001)의 연구와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실제 기술의 이용 의사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설미와 최송식(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심리적 요인이 2차 정보격차 요인인 정보활용의 질적 유용성 및 양적 다양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권현진, 김혜정, 김현철(2015)의 연구결과와, 디지털기술을 사용하는 개인 성향의 일부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기기 활용과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설중호(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분석결과와 관련된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기기 접근성으로부터 정보활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는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디지털기술 및 기기 대한 보유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능정보기술 및 기기의 충분한 보유와 더불어 보유한 기술의 용도와 특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장점 및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보활용수준이 높다는 Watson(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욕구와 태도, 기대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충분한 정보 기기와 인터넷 시설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van Dijk(2020)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 조력과 정보활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의 다중매개효과 분석결과와 관련된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조력으로부터 정보활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는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신체장애 성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 기술 사용에의 자신감을 부여하고, 좌절의 극복을 도와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강화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기술의 장점과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돕고, 두려움을 낮추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유용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실제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적 기술수용모델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주장을 증명하는 결과이며(김지혜, 2021), 부모세대의 인터넷 활용을 높이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자녀세대가 디지털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박웅기와 박윤정(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조력 요인이 기술수용태도와 관련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

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기술의 수용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한상윤과 남석인(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하는 정책적·교육적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수준 향상을 위해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원적인 법체계는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통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원적인 법체계의 마련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정보화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의 마련이 22년 1월 요청되어 현재 추진단계에 있다. 해당 법안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내용, 시행기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종덕, 2021). 특히, Covid-19 이후 비대면, 무인화가 촉진되고 있는 현재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각 장애 특성에 따른 정보기술 접근의 보장과 이용능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강화로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해야 한다. 정보기술과 기기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현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기술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에의 접근과 기술 사용 중 발생하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기술 사용에 있어 사회적 지지망의 개입을 중요하

게 인식하여, 디지털 봉사단과 디지털 서포터즈 등 정보 활용능력이 뛰어난 청년 봉사자를 디지털 조력 인력으로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체장애 성인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수립을 통해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을 돕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수용 및 활용의 첫 단계는 심리적인 것으로, 욕구, 태도, 기대, 동기 등의 심리적 요인은 ICT의 이용 및 수용을 결정짓는다(van Dijk, 2020). 즉, 기술 이용에 대한 충분한 욕구와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될 때 정보기술에 대한 역량과 활용을 높이고자 주도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신체장애 성인의 특성상 기술에의 완전한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단순히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역량에 대한 서비스만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정보활용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는 모든 장애 유형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능 정보화 관련 정책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국가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모든 장애 유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등 외부신체기관의 장애 이외에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또 다른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모든 유형의 장애인 표본을 모집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로 정보접근, 역량, 활용 수준에 차이가 있기에(백세현·이성규, 2021) 모든 장애 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장애 유형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여 장애 국민의 정보권을 보장하고 정보 수준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지니는 정책적·교육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원자료 데이터의 조사 대상과 관련한 한계이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유형은 크게 15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분석에 활용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2)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적 장애 유형 중 외부신체기능장애의 하위요인인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의 5가지 유형의 장애만을 연구대상으로 정해 연구결과를 모든 장애 유형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해결을 위해 외부신체기능장애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기기 접근성의 측정과 관련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1차 정보격차 요인인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2차 정보격차인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보격차 유형의 단계적 연속성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기술에의 접근성을 완전히 측정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2)는 디지털기기 접근성에 있어 단순하게 보유 여부와 사용 여부만을 묻는 측정 문항을 사용하여 신체장애 성인의 정확한 정보접근수준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디지털기기 접근성을 세밀하고 폭넓게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2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제약으로 정보추구욕구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에 있어 간과되고 있던 정보추구욕구의 중요성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으나, 패널 조사의 특성으로 정보추구욕구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2)가 비교적 과학적으로 구성된 측정 문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라고는 하나, 정보추구욕구를 판단하기에 완벽히 정합한 문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보추구욕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개선 및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에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조력, 자기효능감, 정보추구욕구가 미치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접근성, 디지털 조력과 종속변수인 정보활용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정보추구욕구가 보이는 다중매개 효과를 함께 검증함으로써 신체장애 성인의 정보활용수준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및 교육방안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주현, 박재국, 김효영(2023). 장애인들이 체험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과 디지털 디지털기기 접근성.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6(1), 63-95.
- 고대선(2019). 기술수용모델(TAM)을 적용한 노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용의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78), 347-360.
- 고정현(2021). 고령층의 정보의 질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조력자 활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3), 23-46.
- 고정현, 박선주(2021). 고령층의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조력자 활용 유형화와 특성 비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4(2), 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01). 정보격차 해소에관한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지능정보화 기본법.
- 교육부(2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권선희(2022).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취약계층의 계층별 분석. **지식경영연구**, 23(4), 1-19.
- 권현진, 김혜정, 김현철(2015). 아동의 심리요인과 2차적 정보격차 유형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인터넷 이용 동기, 인터넷 자기 효능감, 정보 추구 욕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3(1), 235-260
- 김경희, 유수정(2020). 노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에 대한 접근·통제능력과 사회적 소통능력을 중심으로 장년층과의 비교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37(3), 95-138.
- 김두래, 강상훈(2023).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배움터 참여에 따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0(60), 37-58.

- 김민정, 박영민(2021).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495-507.
- 김문조, 김종길(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4), 123-155.
- 김배성, 우형진(2019). 인공지능(AI)스피커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9), 1-10.
- 김봉섭, 고정현(2020). 고령층 디지털 사회 자원에 대한 디지털 조력자 영향 연구: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27-57.
- 김아영, 김경미(2022). 장애인의 전자정부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6(56), 5-31.
- 김양이, 이연숙(2017).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2(4), 217-238.
- 김유나, 변은지(2021). 고령층 디지털 정보역량과 디지털 정보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3), 89-97.
- 김종기, 김진성(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화정책*, 18(3), 25-49.
- 김지혜(2021). 신체장애인의 기술 접근성이 기술 수용 태도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태균, 조현숙(2008).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격차 요인분석. *시각장애연구*, 24(2), 61-79.
- 김태일, 도수관(20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 *사회복지정책*, 21(4), 341-365.
- 나운환. **장애학: 통합재활적 접근**. 나눔의집, 2016.

- 나정(2021). 기술준비수용모델을 적용한 호텔 서비스 로봇의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노병일, 심희숙(2013).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미취학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90-113.
- 문영임, 이성규, 김지혜(2021).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정보화정책**, 28(4), 37-53.
- 박선미, 정민승(2020). 미디어 활동에 참여한 성인중기 학습자의 민주적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평생학습사회**, 16(3), 31-62.
- 박성현(2007). **회귀분석(제3판)**. 서울: 민영사.
- 박영주(2021). 신체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기기를 통한 온라인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박용기, 박윤정(2009).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정보격차(Internet Digital Divide)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2), 395-417.
- 백세현, 이성규(2021). 지체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2(52), 85-110.
- 보건복지부(2018). 2018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2019). 2019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2020). 2020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2021). 2021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2022). 2022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2023).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20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서이중(2000).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2, 68-87.
- 서형준(2014). 정보격차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657-666.
- 설중호(2017). 모바일 정보격차 조절효과에 따른 개인의 성향 및 자본이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손경애(2001). 한국 고등학생의 PC 이용격차 경로분석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19(2), 132-162.
- 송효진(2014). 질적 정보격차와 인터넷 정보활용의 영향 요인 고찰.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18(2), 85-116.
- 신혜리, 김수경, 김영선(2020). 중고령자의 자기효능감이 디지털헬스기기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과 노년층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10), 13-22.
- 엄효진, 이명진(2020).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2), 1-20
- 오설미, 최송식(2021). 노인의 디지털 정보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연구**, 76(4), 137-170.
- 오인탁(2017).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2, 417-445.
- 오주현(2017).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와 사회관계의 영향력: 정보기기 및 서비스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2), 39-81.
- 오지안, 유재원(2018).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319-344.

- 윤희정, 신혜리, 김영선(2019).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가구형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2), 193-199.
- 외교통상부(200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이근희(2023).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상이(2023).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장애인의 복지수준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성일(2006). 정보접근성 향상방안; 국내외 정보접근성 법제도 및 정책동향. **지역정보화**, 36, 12-21.
- 이수상, 장임숙(2010). 다문화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91-417.
- 이우승(2006). 장애인의 정보활용격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은정(2020). 소비자의 웨어러블즈 스포츠웨어 기술수용 과정에서 연령, 인지욕구, 패션관여의 조절효과 연구. **문화기술융합저널**, 6(1), 289-299.
- 이종덕(2021). 디지털 포용사회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 **한양법학**, 32(2), 1-21.
- 이현경, 조성혜, 김정희, 김윤경, 추향임(2014). 농촌지역 중년과 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44(6), 608-616.
- 임자예(202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스마트 정보역량과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정우(2022). 신체장애인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용 태도, 이용 동기, 디지털정

- 보화 활용 수준 간의 관계: 디지털 조력 수준과 정보역량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임정훈, 이혁준, 이지훈(2020).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영향 요인: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9), 475-485.
- 장창기, 성욱준(2020).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7(3), 56-81.
- 전우천(2016). 장애인 정보격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의정보문화연구**, 2(1), 43-48.
- 정덕임(2012).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 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 정혜인, 김진영(2018).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관계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431-447.
- 조규동(2018).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적 놀이에 대한 연구: 현장연구대회 초등 부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조주은(2003). 장애가 디지털기기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209-232.
- 조주은(2010). 노인의 휴대전화 수용: 사용용이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4), 533-561.
- 진상기(2013). 한국 정보격차의 시계열 변화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161-188.
- 진춘화(2019). 자기효능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중·일의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최선경(2020).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사회 여성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 현황과 역량강화기반 정보화교육 지원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4(5),

655-661.

- 하승희(2015). 소셜미디어 접근성과 무용교육적 속성, 교수행동, 소셜미디어 태도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2022).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허균(2013). 컴퓨터활용교육: PISA 2009에서 ICT 활용능력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6(1), 51-61.
- 허덕원(2020). 결혼이민자의 다층적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2020, 1-20.
- 황령희(2003).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와 고용**, 13(2), 21-43.
- 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이원태(201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연구: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198-225.
- 황주희(2019). 장애인의 정보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6(3), 53-68.
- 황현정, 황용석(2017).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359-38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54-196). Guilford Press.
- Burkley, E., Burkley, M.. Motivation Science. Pearson Education, 2018.
- Clark, Christine., Gorski, Paul. (2001).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 Digital Divide: Focus on Race, Language, Socioeconomic Class, Sex, and Dis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s*. 3. 39-44.
- DiMaggio, P., & Hargittai, E. (2001).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Princeton: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Woodrow Wilson School, Princeton University*, 4(1), 4-2.
- Hargittai, E. (2001). Second-level digital divide: Mapping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arXiv preprint cs/0109068*.
- Helsper, E. J., & Van Deursen, A. J. (2017). Do the rich get digitally richer? Quantity and quality of support for digital eng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5), 700-714.
- Lee, Yuan-Hsuan, and Wu, Jiun-Yu. (2012). The effec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inner and outer states of ICT on engagement in online reading activities and PISA 2009 reading literac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reading literac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3), 336-342.
- Livingstone, S., Bober, M., & Helsper, E. (2005). Inequalities and the Digital Divide in Children and Young People's internet use: Findings from the UK Children Go Online projec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UK.
- Molnár, S. (2003).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 Sangyoon Han, Seok In Nam. (2021). Creating supportive environments and enhancing personal perception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mong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47(8), 339-352.
- Scheerder, A., van Deursen, A.J.A.M. & van Dijk, J.A.G.M. (2017). Dete

- rminants of Internet skills, uses an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econd- and third-level digital divid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4, 1607-1624.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 Selwyn, N. (2004).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s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6(3), 341-362.
- Stephanidis, C., & Savidis, A. (2001).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methods, tools, and interaction technologie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1(1), 40-55.
- Taylor. H. (2000). The Harris Poll #30: How the internet is improving the lives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Creators Syndicate, Inc. Retrieved April 11, 2002.
- Taylor. S., & Todd. P.A. (2001).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6(2), 144-176.
- van Dijk, J.A.G.M. (2006). Digital divide research,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Poetics*, 34, 221-235.
- van Dijk, J.A.G.M. (2020). **The Digital divide**. Polity Press.
- Venkatesh. V., & Davis. F.D. (2000).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186-204.
- Watson. J. S. (1998). "If You Don't Have It, You Can't Find It." A Close Look at Students' Perceptions of Using Technology. *J. Am. Soc. Inf. Sci.* 49(11): 1024-1036.

Ziyi Li, Tianming Zuo, Xiaotong Wei & Ning Ding (2023) ICT Self-efficacy scale: the correlations with the age of first access to the internet, the age at first ownership of a personal computer (PC), and a smartphone, *Medical Education Online*, 28:1.

Zullkosky, K. (2009). Self-efficacy: A concept analysis. *Nursing Forum*, 44(2), 93-102.

## ABSTRACT

### The Effect of Digital Devices Accessibility and Digital Support on the Digital utilization in adults with disabilities:

Through self-efficacy and information seeking desire

Ju Eu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digital support, self-efficacy, and information seeking desir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on digital utilization, and to verify whether parameters self-efficacy and information seeking desire have multiple mediating effects between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digital assistance, which is a independent variable, and digital utilizatio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Through this study, we seek ways to improve the level of digital utiliz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 specific and practical policies and educational measures to close the digital divide. To this end, raw data for the disabled were used among the 2022 digital divide survey data of the Kore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 other words, 2,200 people with disabilities aged 7 to 69 across the country (physical, brain lesions, auditory/verbal, and visual impairment types) who had used digital devices within the past month were used, and 1,895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ver the age of 19 who responded to all the questions used in the study were selected as the final subj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gital utilizatio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disability type, disability level, and disability timing factors. Also,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and digital support,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information-seeking desire, and digital utilization, and the parameters, self-efficacy and information-seeking desire, were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igital utilization. In addition, among the effects of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and digital support,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on digital utilization,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information-seeking desire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policies and educational measures to close the digital divide by improving the level of digital utiliz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re as follows. First, institutional reinforcement,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Digital Inclusion Act』, is necessary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improve the level of digital utiliz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digital utiliz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a professional social support network that can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their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and a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course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digital utiliz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of digital utilization by providing a curriculum that can improve self-efficacy and information seeking desire beyond simply supporting services for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competency. Finally, when it comes to digital transformation, government departments need to include all types of disabilities as the target of policies to close the digital divide, guaranteeing the information rights of the disabled and improving the level of information.

**Keywords:**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digital support, self-efficacy, information seeking desire, digital utilization, digital divide, adults with disabilities, digital divide survey,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부록〉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설문지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관련 문항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1) - 응답자 관련 문항			
연령	만 _____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장애유형 (주된 장애 1개만)	<input type="checkbox"/> 1. 지체 장애(□상지/□하지) <input type="checkbox"/> 2. 뇌병변 장애(뇌손상·뇌성마비·뇌졸중) <input type="checkbox"/> 3. 시각 장애 <input type="checkbox"/> 4. 청각 장애 <input type="checkbox"/> 5. 언어 장애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1. 심한 장애인(1~3급) <input type="checkbox"/> 2.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장애 발생 시기	<input type="checkbox"/> 1.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선천적 장애) <input type="checkbox"/> 2. 출생 후 (후천적 장애) 【장애발생 연령 : 만 _____ 세】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초등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input type="checkbox"/> 3.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input type="checkbox"/> 4.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조금을 포함하여 가구 월평균 소득을 응답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1.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100 ~ 199만원 <input type="checkbox"/> 3. 200 ~ 299만원 <input type="checkbox"/> 4. 300 ~ 399만원 <input type="checkbox"/> 5. 400 ~ 499만원 <input type="checkbox"/> 6. 500 ~ 599만원 <input type="checkbox"/> 7. 600 ~ 699만원 <input type="checkbox"/> 8. 700 ~ 799만원 <input type="checkbox"/> 9. 800 ~ 899만원 <input type="checkbox"/> 10. 900 ~ 999만원 <input type="checkbox"/> 11. 1000만원 이상 ※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응답		
지역구분1	<input type="checkbox"/> 1. _____ 시/구 <input type="checkbox"/> 2. _____ 군	지역구분2	<input type="checkbox"/> 1. 동 지역 <input type="checkbox"/> 2. 읍면 지역

2. 디지털기기 접근성 관련 문항

 다음은 정보 접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 현재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이 귀댁에 있습니까?

구분	응답 항목	
필요시 언제나 이용 가능한	1) 데스크탑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2) 노트북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문2) (보기 카드 제시) 다음 제시한 기기별로 귀댁에서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기기의 보유여부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보유여부
1) 휴대전화(모두 응답)	<input type="checkbox"/> ① 스마트폰 <input type="checkbox"/> ② 피쳐폰 <input type="checkbox"/> ③ 없다 (일반휴대전화)
2) 스마트패드 (태블릿 PC, 아이패드, 갤럭시탭(노트), LG G패드, 레노버 게이밍 탭 등)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3) 스마트 주변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헬스밴드, 인공지능 스피커 등)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피쳐폰 : 스마트폰 출시 이전에 나온 최저성능의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외의 휴대전화를 통칭

※ 스마트패드 : 휴대전화의 형태와 관계없이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가 되는 휴대전화

※ 인공지능 스피커 :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미니, 아마존 알렉사, SK텔레콤 누구, KT 기가지니, 구글 홈 미니 등

문3) 현재 귀댁에서는 인터넷(유선 또는 무선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1.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할 수 없다

1) 본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일부만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 3. 사회적 지지 관련 문항

#### 디지털 조력자 & 사회적 자본

문15) 귀하께서는 디지털 기기(PC 또는 스마트기기 등)를 이용하다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	1	2	3	4
2) 인터넷 정보검색으로 도움을 받는다	1	2	3	4
3) 가족(자녀, 손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4)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6) 서비스센터 등 전문 인력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 4.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

문18) 다음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데 자신이 있다	1	2	3	4
2) 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1	2	3	4
3) 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방법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1	2	3	4
4)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	1	2	3	4

※ 디지털 기기: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PC), 인공지능스피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기

### 5. 정보추구욕구 관련 문항

#### [②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욕구]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디지털 대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 ※ AI, 빅데이터, AR·VR 등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1	2	3	4	5
2)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일자리를 얻고 싶다 ※ AI, 빅데이터, AR·VR 등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관련 직종	1	2	3	4	5
3)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내 삶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4) 정부에서 디지털 대전환 관련 기술 교육을 지원해 준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 6. 정보활용 관련 문항

**다음은 정보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인터넷 이용자들만 응답)**

문8)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모든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PC 기준				스마트기기 기준			
	전혀 이용 안한다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	다소 이용 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 한다	전혀 이용 안한다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	다소 이용 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 한다
1) 정보 및 뉴스 검색	1	2	3	4	1	2	3	4
2) 이메일	1	2	3	4	1	2	3	4
3) 미디어콘텐츠(영화·음악·전자책, 웹툰 등) ※ 뉴스 제외	1	2	3	4	1	2	3	4
4) 교육콘텐츠(각종 강좌·강의수강 등) ※ 평생교육, 취미/문화강좌 등도 포함	1	2	3	4	1	2	3	4

문9)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모든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PC 기준				스마트기기 기준			
	전혀 이용 안한다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	다소 이용 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 한다	전혀 이용 안한다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	다소 이용 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 한다
1)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 서비스에 가입해서 계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	1	2	3	4	1	2	3	4
2)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버 메신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네이버밴드 메신저 등)	1	2	3	4	1	2	3	4
3) 개인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싸이월드, 블로그닷컴(구글) 등) ※ 서비스에 가입해서 계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	1	2	3	4	1	2	3	4
4) 커뮤니티(인터넷 카페·동호회 등)	1	2	3	4	1	2	3	4
5)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료공유, 협업 ※ 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애플 아이클라우드, 예버노트,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등	1	2	3	4	1	2	3	4

※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상의 저장공간(웹서버)에 영화·사진·주소록·문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해두고 PC,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문10) (생활 서비스)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모든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PC 기준				스마트기기 기준			
	전혀 이용 안한다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	다소 이용 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 한다	전혀 이용 안한다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	다소 이용 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 한다
1) 생활정보서비스 ※ 날씨, 뉴스, 버스 및 지하철 도착정보, 정류장 및 역 정보, 길찾기 등	1	2	3	4	1	2	3	4
2) 전자상거래서비스 ※ 네이버쇼핑, 쿠팡, 배달의민족, 옥션 등 쇼핑, 예약·예매	1	2	3	4	1	2	3	4
3) 금융거래서비스 ※ 인터넷뱅킹, 계좌 확인·이체·송금, 증권거래 등	1	2	3	4	1	2	3	4
4) 공공서비스 ※ 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세금/공과금 조회 및 납부 등 ※ 교통안전, 치안, 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1	2	3	4	1	2	3	4

문11) (정보생산-공유정도)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구 분	PC 기준				스마트기기 기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내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수정·편집한 콘텐츠(정보/지식/뉴스/동영상/사진 등)를 올린 적이 있다(예: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등) ※ 쇼핑정보나 구매후기처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본인의 경험을 작성·게시하는 것도 포함	1	2	3	4	1	2	3	4
2) 인터넷에서 본 콘텐츠(정보/지식/뉴스/동영상/사진 등)를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한 적이 있다(예: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라인 등)	1	2	3	4	1	2	3	4

문12) (네트워킹 정도)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구 분	PC 기준				스마트기기 기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나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2)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문13) (사회참여 정도)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구 분	PC 기준				스마트기기 기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다(댓글 작성, 게시판 글 게시, 토론 등)	1	2	3	4	1	2	3	4
2)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등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3) 나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금전/재능)나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4)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여론조사, 서명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문14) (경제활동 정도)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구 분	PC 기준				스마트기기 기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나는 인터넷을 통해 취업이나 이직(승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2) 나는 인터넷을 통해 창업이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활동(홍보, 광고, 판촉, 프로모션 등)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3) 나는 인터넷을 통해 소득증대(유지)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검색/습득, 재테크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부동산·금융상품, 교육/학습, 커뮤니티(모임) 참여, 인맥형성/관리, 다양한 재테크 활동 등 포함	1	2	3	4	1	2	3	4
4) 나는 인터넷을 통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공동구매, 해외직접구매, 가격비교 등)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